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World City Expo 2009 Incheon, Korea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World City Expo 2009 Incheon, Korea

주 제 :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A City with Dreams)

기 간 : 2009. 8. 7(금) ~ 10. 25(일) 80일간

장 소 : 인천 전역(주행사장 : 송도국제도시)

내 용 : 세계 각국 도시와 글로벌기업 참가

비즈니스, 콘퍼런스, 페스티벌의 종합적 엑스포

주 최 : 인천광역시

주 관 : (재)인천세계도시엑스포



www.incheonexpo2009.org

2008. 1
굿모닝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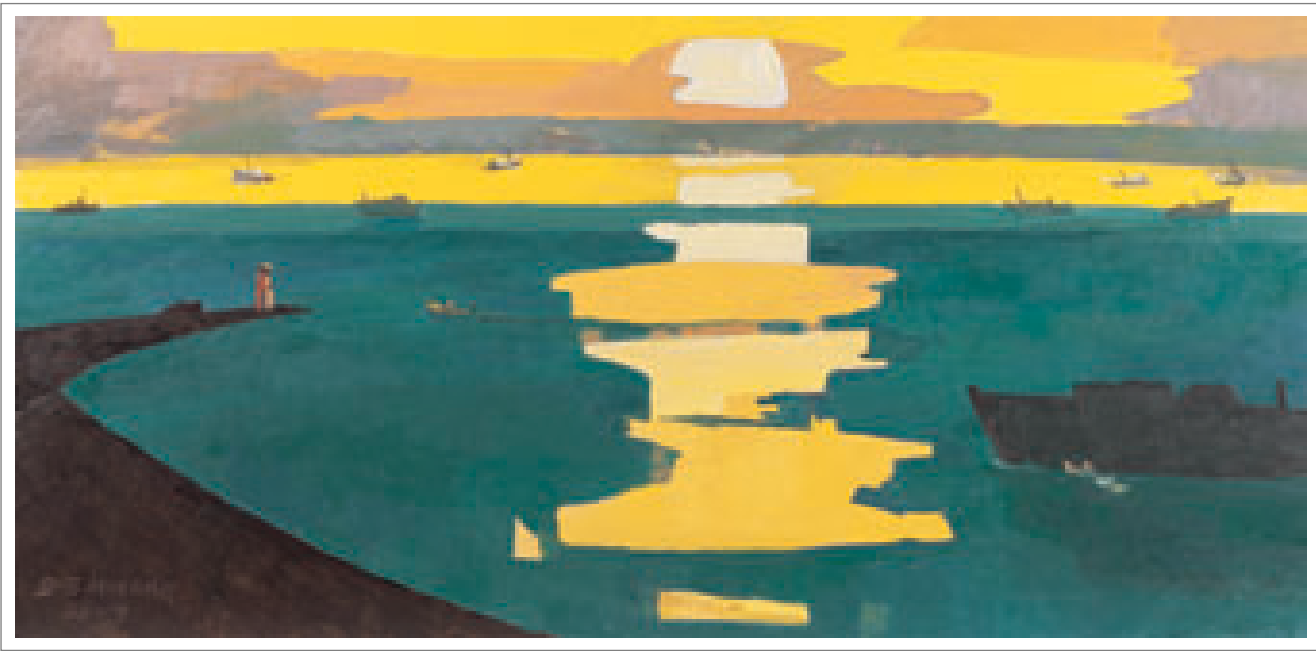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희망의 아침



황병식 作 · 185.0cm×90.0cm · 마포, 유채 · 2007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인체의 솜털까지 있는 그대로 섬세하게 그려내는 극사실주의자들과는 다르다.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은 있는 것임을 사물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의 본령이 내면과의 대화요, 그 결과물이며 결국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그 본령을 떠나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예술이란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이 빛을 주는 것이고, 화가란 모든 것을 뜻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2008년이 되길 바란다. (황병식)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 1

CONTENTS

January 2008 통권 169호

Good Morning 2008_

04 새해인사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창규
인천대교
OBS 경인TV 개국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06 신년현장

08 희망채널 21 · 36

10 Incheon Dream

Fly Incheon_

18 Good Morning 2008

22 굿인천 굿뉴스

27 군 · 구 소식

28 시의회 소식

36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①

58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새해 시정설계
'중남미 대사초청 도시엑스포 설명회' 외
'삼지의 거리, 간판시범 사업지원 대상지 선정' 외
'2008년도 예산과 조례안 가결' 외
세계가 꿈꾸는 도시, 뮌헨
부평지하상가

Incheon Life_

14 이달의 공연

17 이달의 책

34 Healthy Life 건강백세

40 인천 구석구석 즐기기

44 '추억'을 추억하다 ①

54 Info Box

59 지상박물관

'나무자전거' 외
'인천을 탐하라' 외
소아비만
겨울, 실내에서 즐기기
이발소
'희망2008나눔캠페인' 외
전동에서 만들어진 근대화페

Incheoner_

30 인천역사 책갈피

32 인천이 담긴 시 ③

35 김치철락

46 인천을 빛낸 사람들 ①

48 사람하나 만나고 싶다

52 독자글 마당

종(鐘)과 오편(午砲), 그리고 사이렌
김차영의 '강도의 하늘'
'할아버지와 손녀의 장기 열전' 외
시각 장애인의 등불 '충암 박두성'
김수홍 씨
이번달 주제 '약속'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4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8년 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 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 · 하정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 김정석(자유사진가)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한성인쇄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 도약의 원년 만듭시다

친애하는 27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밝고 희망찬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07년은 우리시에게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금년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인천시가 2020년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 결집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EXPO) 준비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단계별 로드맵의 제시와 함께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인천이 동북아 최고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U-Eco 기반, 친환경 복합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복지, 문화기반 마련을 통한 인간중심 도시 건설, 그리고 인천 브랜드 명품화와 다문화 도시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자는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세계 11대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 전망하며 물류와 금융 허브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천이 하늘, 땅, 바다를 통해 세계와 이어져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꾸는 도시는 새롭습니다. 희망도시 인천은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하도록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나아가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270만 시민 모두의 소망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 시장 **안 상 수**



인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회되겠습니다

존경하는 270만 시민 여러분! 2008년 무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희망을 안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소망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회는 민의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인천 건설을 위해 전 시의원이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는 시민 위주의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 지방정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의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정착 시키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발전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와 시의회의 주요 활동사항 등 의정활동의 생생한 현장정보를 신속하게 시민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더욱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21세기 인천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망의 무자년 새해, 새 아침에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 창 규**



Incheon Bridge

경이로운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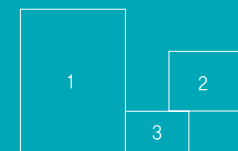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하장원 시 공보관실

인천공항~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의 장대한 모습이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인천대교가 지난해 12월 7일 핵심구간인 주탑 상판(차가 다니는 도로)을 교각 위에 얹는 공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장대한 위용을 드러냈다.

63빌딩 높이(249m)와 맞먹는 역Y자 모양으로 세워지는 주탑 2개는 현재 210m 높이까지 뻗어 올라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교각들을 지탱하고 있다. 주탑은 현재 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대교 사장교 주탑 상판은 무게 2천700t, 길이 112m의 강재 강판으로 지금까지 교량에 쓰인 상판 가운데 최대 길이다.

인천대교는 영국언론에 의해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10 Wonders of the Construction World)’로 뽑히기도 했다.

2009년 10월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서울남부를 비롯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통행거리가 기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13km 이상 단축되어 통행시간도 40분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



1. 인천대교 주탑 상량식
2. 인천대교 주탑 상판 설치 작업
3. 상량식에 참여한 안상수 시장과 관계자들

‘희망과 나눔의 빛’을 전해요~

인천·경기 지역의 새 민영방송인 OBS 경인TV가 지난해 12월 28일 첫 전파를 발사했다. iTV가 지난 2004년 방송을 중단한 지 3년만의 일이다. ‘희망과 나눔의 빛’이라는 방송이 넘처럼 OBS 경인TV가 인천과 경기 지역에 행복의 빛을 널리 전하리라 기대된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OBS 경인TV



인천·경기의 새 민영방송, 신고합니다!

개국을 앞둔 OBS 경인TV 방송국. 매일 20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실시간 시험방송에 지칠 법도 한데, 직원들의 입가에 선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부지런한 움직임 속에서 한국 방송계의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듯 하다.

인천·경기 지역의 민영방송사인 OBS 경인TV가 지난해 12월 28일 개국했다. iTV가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방송을 중단한 지 어언 3년. 손꼽아 기다리던 경인지역의 새 민영방송시대가 열린 것이다.

OBS 경인TV는 지난해 11월 23일 정보통신부로부터 계양산 아날로그TV와 디지털TV 송신소를 허가받고, 지난해 12월 28일 대망의 첫 전파를 쏘았다. 방송권역은 인천을 비롯해 부천·광명·시흥·김포·고양·화성·안산·파주·양주시 등 경기지역으로 채널은 아날로그 21번, 디지털 36번이다. 성남·광주·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은 먼저 유선사업자와 협의하여 케이블에서 방송을 시작하고, 추후 용문산 송신소를 허가받으면 지상파로 방송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서울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절차에 따라 케이블을 통해 방송을 전하게 된다. 시청자의 규모를 헤아리면 인천·경기 지역만 1천400만명, 서울까지 아우르면 총 2천400만명에 이른다.

시청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OBS 경인TV는 희망과 나눔의 빛, 세계의 창, 지역경제와 문화발전, 남북화해협력 증진, 생명문화와 다원문화 등 5대 방송이념을 바탕으로 시청자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률이 아닌 시청자를 중심에 둔 방송’을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OBS는 지역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프로그램과 현장의 숨소리까지 담아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내 이웃의 삶을 고스란히 전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집중 편성했다. 🍷



OBS 경인TV 편성 계획

보도

메인뉴스인 OBS뉴스는 김석진 보도국장이 직접 진행한다. 방송시간대는 오후 8시로 SBS뉴스와의 정면 승부가 기대된다. OBS뉴스의 기본방침은 지역성과 국제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인지역의 민영방송사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취재·보도하고, 세계화에 발맞추어 세계 주요뉴스를 신속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드라마

기존에는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를 선보인다. 8부작 미니시리즈로 진행되는 개국 특집 드라마는 영화감독과의 공동작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산직전의 중년남자가 가족과 함께 밴드 활동을 하며 새 인생을 연다는 내용의 휴먼코미디 드라마 〈미스터 킹 밴드〉, 저승사자의 활약을 그린 판타지 드라마 〈저승사자연〉, 할머니 여대생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원더풀 그랜드마더〉 등이 브라운관을 장식한다.

예능

시청률보다 시청자를 먼저 생각하는 건강한 예능방송을 표방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9시에 선보이는 〈오색토크쇼〉는 연예인들의 신변잡적 토크쇼에서 벗어나 재미있으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전할 계획이다. 박명수, 이휘재, 박경림 등 5명의 인기MC가 진행을 맡는다. 그밖에 아나운서들의 방송 입성기를 다룬 〈리얼스토리-아나운서 만들기〉가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교양

품위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창사특집 3부작 특집다큐멘터리 〈희망의 땅, DMZ를 가다〉는 40여일간의 DMZ 횡단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주철환 OBS 사장과 영화배우 김혜수가 진행하는 〈주철환, 김혜수의 문화전쟁〉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밖에 사회 주요사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최불암의 즐감세상〉, 사회에 기부문화의 싹을 틔울 〈김혜자의 희망을 찾아서〉 등이 선보인다.

문의 ☎ OBS 경인TV ☎ 680-7400

Interview | 유근형 OBS 경인TV 제작국장

‘시청자 지상주의’ 시대를 열 것



OBS 경인TV의 제1원칙은 시청자 지상주의다.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건강한 방송이 OBS 경인TV의 모토. MBC PD 출신으로 초대 OBS 제작국장으로 선임된 유근형 국장으로부터 TV 프로그램 편성방향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본다.

· **OBS 경인TV의 개국 소감은?** 3년여간의 개국 준비 과정이 있었던 만큼, 직원들 모두 확신과 열정에 차 있다. 경인지역만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방송을 선보이겠다. 기대해 달라.

·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침과 전략은 무엇인가?** OBS에서만 볼 수 있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인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심층적인 뉴스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다.

· **OBS 경인TV가 지향하는 목표는?** OBS 경인TV는 일반적인 지역 민영방송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는 독자적인 주제의식과 포맷을 갖춘 프로그램을 100% 자체제작하며, 장기적으로는 메이저 방송을 추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건강한 방송을 지향한다. 직원 모두 시청자에게 해가 되는 방송은 다음날 바로 폐지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1.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2.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될 주 행사장의 기공식
3.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참가의향 MOU체결식 모습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

A City with Dreams

2009년이 오면 인천에서 세계도시의 꿈이 펼쳐진다. 세계 최초로 '도시'와 '유비쿼터스'를 주제로 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 전역에서 열린다. 2008년은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제공 ·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엑스포는 영국의 알바르공에 의해 처음 창시되었다. 1851년에 열린 런던엑스포가 최초의 엑스포로 당 리(1867), 필라델피아(1876), 샌프란시스코(1915), 오사카(1970), 밴쿠버(1986)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개최되었다. 각국은 엑스포를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 차례나 엑스포를 개최한 파리는 도시 전체를 재편하는 기회로 활용했으며 1985년에 열린 쓰쿠바엑스포는 지역을 첨단과학단지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1998년의 리스본엑스포는 폐유저장소, 쓰레기단지를 첨단산업단지와 관공서단지로 탈바꿈시키기

도 했다. 이제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개최국의 권위와 업적을 과시하는 세계 3대 행사로 발돋움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엑스포에 참가한 것은 1893년 시카고엑스포다. 관계자 5명과 국악사 10명을 파견했고 8칸의 기와집에 관복 · 도자기 · 모시 · 부채 · 갑옷 등을 전시했다.

‘도시’와 ‘유비쿼터스’의 엑스포

21세기는 도시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이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세계 최초로 ‘도시’를 주제로 열린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인류문명의 발달과정에서 도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나일 · 유프라테스 · 인더스 · 황허강 등 문명의 발상지에 세워진 고대도시로부터 중세도시를 거쳐 현대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이처럼 늘 인류와 함께 진화해왔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시는 새로운 진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오랜 시간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해 온 도시가 그 경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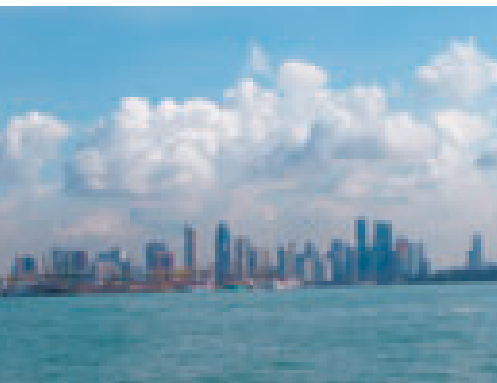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세계의 도시와 도시, 도시와 기업, 기업과 기업이 도시 발전 과정상의 기술과 정책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도시 마케팅의 장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페스티벌과 체험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엑스포이기도 하다. 엑스포의 주 행사장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U-city’ 체험관 등을 건설해 송도국제도시 전역에서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엑스포는 없었다.

전 세계 200여개 도시 참가 예정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는 전 세계 200여개 도시와 100여개 글로벌 기업, 3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UN 등 엑스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제기구, NGO, 정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싱가폴 전경

현재 미국 버뱅크 · 앵커리지 · 호놀룰루, 멕시코 메리다, 일본 기타큐슈 · 하마마츠, 인도 콜카타, 베트남 네안성 · 하이퐁, 몽골 울란바트라, 중국 하얼빈 · 단둥, 루마니아 몰도비티아 · 비어탄 · 캄피아터치, 기라우, 그레치 등 16개 도시와 참가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엑스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인천의 발전 과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중간 점검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인천은 2003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돼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9년은 3단계의 인천 발전 로드맵 중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자 세계 도시에 어울리는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시점으로 엑스포는 인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확실하게 브랜딩할 계기가 된다.

더불어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 등으로 중국으로 몰릴 세계적 관심을 인천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며 2012년 여수엑스포보다 3년 앞서 치르는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로 우리나라 엑스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9 인천방문의 해’ 행사와 연계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목표 관람객은 해외관람객 1백만명을 포함한 총 1천만명으로 ‘2009 인천방문의 해’ 행사 등과 연계한 2천여회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1천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는 1천4백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던 1993년 대전엑스포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2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3천6백억원의 커다란 효과가 기대된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A City with Dreams)’라는 주제로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송도국제도시 3공구내 약 50만㎡의 주 행사장을 비롯해 우리시 전역에서 치러진다. 🍷

엑스포를 통한 해외도시 발전 사례



France
프랑스

파리
박람회 개최의 덕을 톡톡히 본 대표적인 곳은 프랑스 파리라고 할 수 있다. 1855년부터 1900년까지 5차례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파리를 세계적인 관광 · 예술 · 패션 · 문화의 중심지로 각인시켰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상징 에펠탑은 1889년 열린 세계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임시 구조물이었다.

Japan
일본

오사카 · 쓰쿠바
아시아 최초의 박람회인 1970년 일본의 오사카박람회는 6천여만 명이 관람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 중 하나로 오사카를 중심으로 관서지방의 경제 · 사회 ·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전시하면서 2차 세계대전 패전국가의 명예를 벗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쓰쿠바 박람회(1985년)는 1조1천579억엔을 들여 ‘주거와 주변환경’에 대한 전시장을 조성했다. 진보한 과학기술적 연구를 위한 국제적 센터 ‘과학도시 쓰쿠바’로의 도시 전환을 꾀했다. 박람회 생산유발효과로 2조3천163억엔을 창출하며 일본 산업구조가 대형제조업 기반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

Canada
캐나다

밴쿠버
1986년 캐나다 밴쿠버박람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밴쿠버가 태평양의 관문으로 자리잡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섬을 조성하여 부지로 활용하였으며 개발한 섬의 일부는 현재 Formula1 레이스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자동차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광객이 연평균 7.8%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pain
스페인

세비아
1992년 스페인의 세비아박람회의 경우 세비아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었다. 세비아공항 이용객은 박람회 개최 전인 1991년 90만명에서 2004년 300만명으로 급증했고 사후시설은 첨단과학기술 단지과 레저문화 시설로 활용해 지역 기술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Portugal
포르투갈

리스본
1998년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리스본박람회의 경우 엑스포 부지 일대가 개최 전에는 정유회사 · 도살장 ·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 인한 기피 지역이었지만 개최 후 리스본에서 가장 변화한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나무자전거



지난 2003년 여름, 전지현이 주인공인 올림푸스카메라 CF를 통해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온 음악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비롯하여 '그렇게 너를 사랑해' 등 대중들에게 음악적 실력을 인정받았던 전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과 김형섭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무자전거. 이미 '자전거 탄 풍경' 시절부터 수많은 활동으로 음악성과 가창력을 검증받았으며 200여회의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우리 음악계에 그들만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일시 _ 2008년 1월 19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 777-9140~8 www.iecs.go.kr

팝페라 라스페란자



라스페란자는 '희망'이라는 이태리어이다. 멤버 전부가 성악전공 뮤지컬 배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음악이 나올지 기대가 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가요, 팝송, 제3세계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준비돼 있다.

일시 _ 2008년 1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_ 한중문화관 공연장

티켓 _ 무료

문의 _ ☎ 760-7860

국악체험 놀이극 호랑이를 만난 놀부



국악놀이 <호랑이를 만난 놀부>는 우리 전래동화에 판소리, 민요, 탈춤을 가미하여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장르의 국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한 공연이다. 실감나는 배우들의 움직임과, 극

의 재미를 더해주는 소품,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줄 작은 인형극 등을 통해 어린 관객들을 옛날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우리 소리의 장단을 재미있게 따라하고 신나게 두들겨 보는 체험형 국악공연이다.

일시 _ 2008년 1월 26일(토) 오후 2시, 4시 / 27일(일) 오후 1시, 3시

장소 _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_ 전석 15,000원

문의 _ DUBU기획 ☎ 02-2654-6854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수준 높은 배우들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가족뮤지컬이다. 연극적 상상력에 재미있는 볼거리를 더해 만든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과 신나는 노래와 춤이 그 감동을 더 한다. 또한 스케일이 큰 무대장치에 다양한 특수조명과 특수효과를 이용한 무대효과를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환상적인 장면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일시 _ 2008년 1월 19일(토) 20일(일) 오후 2시,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2,000원 / 10,000원

문의 _ 극단술이 ☎ 02-837-5875

영화공간 주안

1월의 상영작



신과 나는 이야기

34개국 1천만명의 독자가 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놀라운 인생역전의 감동실화이다. 노숙자에서 세계적인 강연가로 재기하기까지 지치지 않는 그의 질문과 그리고 이어지는 진실한 대답.



파리에서

너무나 다른 두 형제의 숨은 사랑 찾기 이야기. 그들이 배워가는 사랑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빛깔이 크리스마스의 파리를 수놓는다.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시 남구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으로, 일반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427-6777)

커피 콘서트

뮤지컬 BIG 4 & More 콘서트



커피콘서트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의 해설과 가슴 속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따뜻한 공연이다. 그 향기로운 첫 무대로 <오페라의 유령>, <미스사이공>,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등 제목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유명 뮤지컬의 주요 음악들을 감상 할 수 있는 <뮤지컬 BIG 4 & More 콘서트>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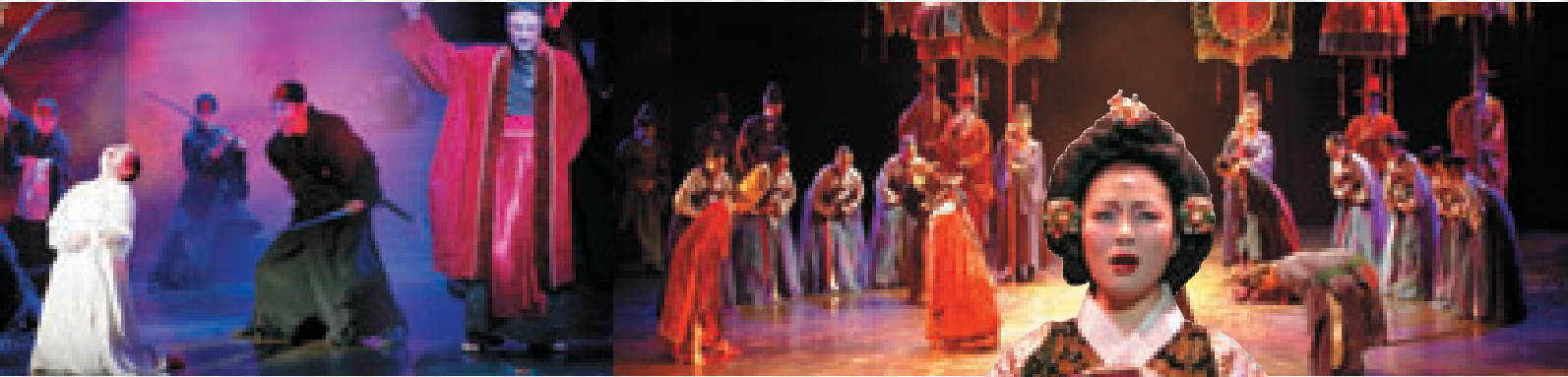
김소현, 윤영석, 박완 등 뮤지컬 스타들과 박상현이 지휘하는 모스틀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는 '사랑과 이별을 테

마로 한 주옥같은 뮤지컬'은 가슴 속 깊은 곳에 남아 있을 사랑과 이별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슬며시 꺼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기간 _ 2008년 1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_ 10,000원
- 문의 _ 인천&아츠사무국 ☎ 420-2027~8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월 7	8	9	10	11	12	13
			인천오페라단 신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 429-0248~9 오페라 신년음악회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우리아이 첫타악콘서트 딱따구리유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 2만원 함박우슴 ☎ 02-515-9227 퓨전국악콘서트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우리아이 첫타악콘서트 딱따구리유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 2만원 함박우슴 ☎ 02-515-9227
	16	17	18	19	20	
	커피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2만원 인천&아츠 ☎ 420-2027~8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 1만 2천원, 1만원, 9천원 / 극단술이 ☎ 02-837-5875 팝페라 라스페란자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4시 / 1만 2천원, 1만원, 9천원 / 극단술이 ☎ 02-837-5875	
21	22	23	24	25	26	27
	제8회 꿈씨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자원봉사애원 ☎ 02-2201-6634			버블버블&매직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 2만원 가즐리언코리아 ☎ 1566-9921	뮤지컬 <명성황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 9만 9천원 7만 7천원, 5만 5천원, 4만 4천원 ☎ 322-2121 중국기예와 변검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뮤지컬 <명성황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 9만 9천원 7만 7천원, 5만 5천원, 4만 4천원 ☎ 322-2121
28	29	30	31			
	문학여성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인천성서신학교 ☎ 428-8660	제2회 매직캣 컨벤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매직캣 ☎ 501-9849	제8회 YMCA 알핀로제 오늘날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 30분 / 초대 ☎ 431-8161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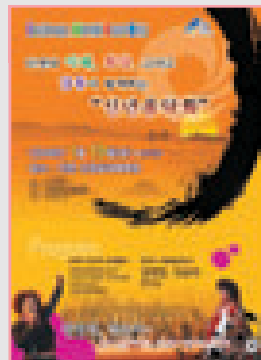


뮤지컬 명성황후

일시 _ 2008년 1월 26일(토), 27일(일) / 토요일 3시, 7시 / 일요일 2시,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VIP석 99,000원 / R석 77,000원 /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문의 _ ☎ 322-2121

1995년 초연 이후 이미 100만 관객을 돌파한 뮤지컬 <명성황후>는 명성황후 그녀처럼 조용한 외침 속에서 강하고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버텨 온 뮤지컬이다. 명실상부한 국민뮤지컬로 자리 매김한 뮤지컬 <명성황후>는 때로는 화려하고 때로는 아련하며 때로는 파스텔턴, 그러나 비극적인 운명의 결말을 맺는 그녀의 삶을 140분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문열 원작, 윤호진 연출로 1995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 올리면서 큰 성공을 거둔 뮤지컬 <명성황후>는 약 십여 년간 수차례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오늘 날 TV드라마와 뮤직비디오, 출판, 음반, 광고 그리고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핵심코드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명성황후>는 1997년 최초로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도전함으로써 한국 뮤지컬의 활성화와 해외진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당시 뉴욕 링컨센터 진출로 전회 기립박수와 「뉴욕타임즈」리뷰

를 받으면서 좌석매진, 입석발매 기록을 세웠고 「뉴욕타임즈」로부터 ‘어떤 국적의 관객이건 감동받기에 충분하다’라는 평을 얻은 바 있다. 또한 2002년 런던 웨스트엔드에 진출하여 ‘용감한 도전’ - 「The Times」, ‘세계 수준’ - 「The Stage」 등의 평가를 얻어냈다. 현재까지 국내 각종 뮤지컬의 수출에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한국 뮤지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렇듯 한 나라의 국모였지만 한 남편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녀가 겪었던 죽음과 만국공통의 정서인 애국심이 결합하여 국제적인 문화상품으로 거듭난 것이다. 뉴욕과 런던, 토론토에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곳곳에서 그 명성을 검증받은 뮤지컬 <명성황후>의 2008 새해 첫 공연인 인천공연. 가슴 아픈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켜 많은 관객을 감동하게 한 초대형 창작 뮤지컬의 현장에 인천시민들을 초대한다.



시민과 함께 하는 2008 신년음악회

도원시립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신년 음악회는 인천의 태동을 느낄 수 있는 한울소리의 대북 공연으로 그 막을 연다. 1부는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소프라노 이인영, 테너 강무림, 바리톤 한규원 씨와 함께 하는 웅장한 협연무대와 시립무용단의 화려하고 우아한 춤의 향연으로 이뤄진다. 이어지는 2부 무대에서는 김영임, 인순이, 변진섭 등 인기가수와 함께 인천시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무대가 펼쳐진다.
일시 : 2008년 1월 19일(토) 오후 4시
티켓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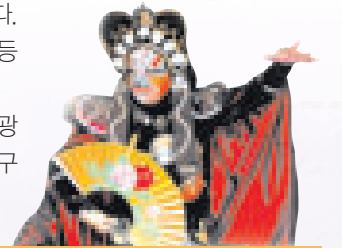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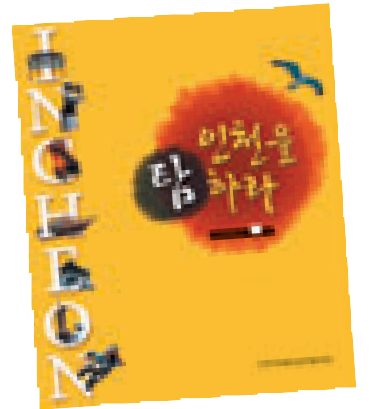
일시 : 인천 도원실내체육관
문의 : ☎ 420-2020~2

BOOK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상임회장 이흥우)가 6개월간의 현장 탐사 끝에 최근 ‘인천을 탐하라-관광코스 21선(選)’을 발간했다. 인천의제 21은 시민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등으로 기초탐사대를 구성해 지난 여름부터 매주 주말마다 각 구 명소를 직접 탐방했으며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 연인들이 의미있는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관광코스 21선은 ‘인천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곳, 많은 이들이 찾는 곳 등 주제별로 나뉘어 있다. ‘배다리 일대 기행’ 코스에는 한국 최초의 철도 기공지, 19세기 후반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 사립학교인 영화학당,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헌책방 거리, 1960년대 서민상을 재현한 수도곡산 달동네 박물관 등이 포함돼 있다. ‘추억의 거리 신포동 음악카페’ 코스는 20대 시절 음악다방의 기억을 갖고 있는 7080세대에게 추천할만한 코스다. 신포동 음악카페 약도를 통해 주인장의 기타 연주가 일품인 ‘흐르는 물’, LP판 가득한 ‘TANTRA(탄트라)’,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재즈바 ‘Bottom Line(바텀 라인)’ 등의 위치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환경관련시설 즐기기’ 코스를 밟으면 ‘미운 오리새끼의 화려한 변신’을 경험할 수 있다. 혐오시설인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마련된 종합스포츠타운, 교육 효과가 있는 가스과학관 등에 대한 이용 정보가 담겨 있다. 이밖에 각 코스에는 교통편, 연락처, 주변 맛집에 대한 팁(tip)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관광코스 21선에는 ‘한남정맥 밟기’, ‘문학경기장 즐기기’, ‘인천박물관 기행’, ‘도심 속 포구 기행’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속해 있다.

인천을 탐하라!



I · N · C · H · E · O · N



네팔 이주노동자가 창작하고 그린 그린 소년동화로 아시아 친구, 어린이들의 인권을 돌아보게 하는 슬프고 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네팔 이주노동자 범 라우티가 글을 쓰고 솜브 라이가 그림을 그린 창작동화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창작동화로는 첫 작품이다. 기획은 지난 2005년 봄에 이루어졌지만 범 라우티

창작 소년동화 돌 깨는 아이들

작가와 솜브 라이 화가가 노동현장에서 일하느라, 또 네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하느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고, 책으로 인쇄되어 독자들을 만나기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글을 쓴 범 라우티 작가는 10년 동안 네팔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기에 누구보다도 네팔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교육과 인권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기획 : 이주노동자방송국 / 판형 : 신국판(A5신) 225*153mm 책값 : 7,000원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한 걸음 바짝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우리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우리시는 올해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동북아 최고 국제 비즈니스 도시 건설 ▲U-Eco 기반 친환경 복합도시 건설 ▲복지·문화를 통한 인간 중심 도시 건설 ▲창조적 인천인 육성과 다문화도시 건설 등을 시정 지표로 정해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향한 발걸음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우리시가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할 10대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동북아 최고 국제 비즈니스 도시 건설

우리시는 올해를 ❶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한 해로 만든다. 2009년에는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라는 주제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열린다. 세계 여러 도시들이 꿈이 있는 도시 인천에서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도시와 세계도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도시발전과 문명, 도시진화의 역사부터 유비쿼터스 미래도시까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시에게는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❷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착실히 준비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빈틈없이 대회를 준비하고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성공적인 대회 기반을 만든다. 또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과 송도 신항만 등 ❸ 경제자유구역 기반 시설의 완벽한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북아 최고 국제 비즈니스 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U-Eco 기반 친환경 복합도시 건설

❹ U-Eco 기반의 친환경도시를 디자인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구조를 개편하고 고품격도시 개발에 힘쓴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구도심에 대한 전략적 개발을 통해 갈등관계를 벗어난 인천시민의 대통합을 유도

하고 도시 인프라와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도 우리시의 역점 사업이다. 또한 U-Eco 복합의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중앙공원, 동북아트레이드타워 등은 그린빌딩으로 건설해 친환경도시 인증(LEED-ND)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맑고 푸른 청명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빼 놓을 수 없다.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제행사 개최에 걸맞은 품격있는 환경 국제도시를 조성하고 먼지, 악취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체감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생명의 숲·친수공간을 통한 자연 도시 조성에도 힘쓴다. 국제도시에 걸맞은 공원녹지를 조성해 명품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것이다. 또 자연친화형 친수공간 확보와 살아 숨쉬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복지·문화를 통한 기반의 인간 중심 도시 건설

품격 있는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 등 인프라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복지체계 구축과 건강한 가정 기반 확대 등 복지 문화 기반의 인간 중심 도시 건설을 구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⑤ 세계 도시 건설과 최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한다. 국제물류 환경 조성을 위한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위한 저비용항공사 설립, 통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물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복합물류 특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첨단 u-City 사업 및 u-IT클러스터 조성 및 최첨단 지식기반 산업 육성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⑥ 역동적인 지역경제,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래시장 경기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고용을 안정시킬 것이다. 인천 지역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종 공사 및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향토업체의 수주율을 높인다. 이와 함께 최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FTA 체결에 대응해 농·어촌 산업의 특성화된 개발 전략을 추진해 신 활력 농업을 육성한다.

시민의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대응하고 이용자중심의 고품격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다. 아울러 광역 및 간선 교통망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반이 구축되도록 힘쓴다.

⑦ 시민 누구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도시를 건설한다. 복지사각지대의 절대빈곤층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찾아가서 지원하는 효율적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이 독립적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품위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에 부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버세대의 사회 참여를 늘리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아울러 가족·가정 중심의 사회복지 추진에 힘을 기울인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시혜와 만성질환 증가 등 시민건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 위생수준 향상 등 공공보건 기반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다.

⑧ 고품격 여가문화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지역문화와 전통문화 등 다양한 공간 조성 및 영상의 콘텐츠 창출을 통한 국제도시 수준의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아울러 인천 관광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해 관광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미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국제관광 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여건 조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스포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시민이 즐기며 참여하는 스포츠 레저 도시를 만든다.



창조적 인천인 육성과 다문화 도시 건설

⑨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인천인을 육성한다.

국제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로 국제 감각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와 특수목적고 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 푸른 학교 생태숲 조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건설한다.

인천대는 국립대 전환 및 송도신캠퍼스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특성화된 대학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등 지역대학 특성화 및 학술연구 단지 조성에 힘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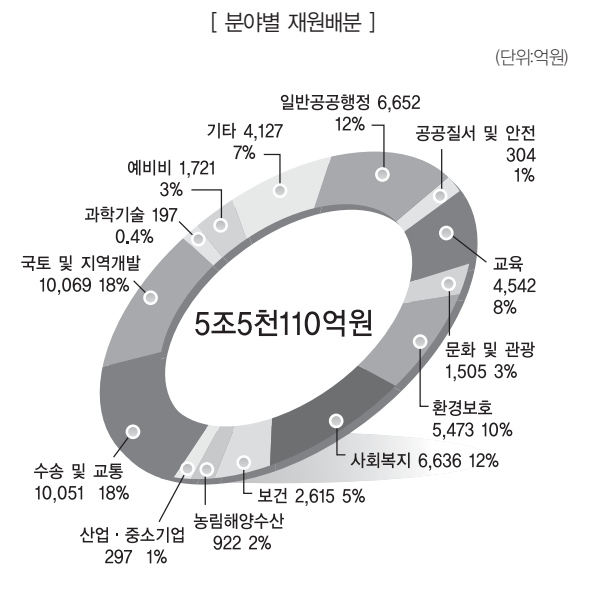
이같은 도시 인프라 확충과 파스한 도시 공동체조성 등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환경, 교육 등 전 분야에 대한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인천인 육성과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국제도시를 조성해 세계 일류명품도시 조성에 한발 바짝 다가선다.

⑩ 실용과 화합을 통한 선진 국제역량 구축과 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북아 최고 비즈니스 메카로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 도시 인천의 이미지와 관광 매력성을 제고하고 도시기반 시설 조성 및 경제 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아울러 다문화 인권센터 건립 계획을 세우고 중동문화원 등 외국인 거주자 종합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도시를 건설하여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2008년 예산 5조5천110억원

올해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기위해 우리시가 사용할 예산은 5조5천110억원으로 지난해 4조9천62억원보다 12.3% 증가한 수준이다. 우리시는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건설 및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시 공간의 재창조를 위한 구도심 재생사업과 도시개발로 조화롭고 품격있는 도시 건설 △산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공원 및 녹화사업,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지속 투자 △최고의 정주여건 조성 및 자립형 복지체계 구축으로 함께하는 복지, 같이 가는 사회 조성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착실한 준비와 문화, 예술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배분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굿인천 굿뉴스		G o o d M o r n i n g I N C H E O N		G o o d M o r n i n g I N C H E O N		Fly Incheon
<div>중남미 7개국 대사초청 도시엑스포 설명회</div> <div></div> <div>이벤 중남미 대사초청 설명회를 통해 중남미 도시들의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참여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조직위는 신한은행과 공식후원은행 지정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div> <div>문의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 440-7800</div>		<div>인천신항만 건설사업 첫 삽</div> <div></div> <div>현대건설시엠은 지난해 12월 12일 신항만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인 항만 진입도로와 호안축조공사(약 1.7km)의 착공계를 제출하고, 인천신항만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신항만은 송도국제도시 남측 해역 끝에 조성되며, 먼저 1단계로 2015년까지 신항만진입도로와 가호안, 항만배후부지와 컨테이너부두 13개 선석, 일반 화물부두 4개 선석 등 17개 선석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신항만의 건설로 항만운영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div> <div>문의 시 항만공항지원과 ☎ 440-3372</div>		<div>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사회협약</div> <div></div> <div>지난해 12월 17일 이창구 행정부시장과 지역사회 각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 사회협약식’이 있었다. 우리시와 지역사회 대표는 협약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사회 주체별 실질적 역할 분담에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시는 향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과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 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div> <div>문의 시 여성정책과 ☎ 440-2683</div>		<div>2007 자원봉사자의 날 대축제</div> <div></div> <div>2007 자원봉사의 날 대축제 행사가 지난해 12월 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안상수 시장과 박창규 시의회의장, 모범 자원봉사자 등 1천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결산하는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13명에게 각각 대통령·국무총리·장관상이, 모범 자원봉사자 84명에게 봉사왕 인증패가 수여됐다. 한편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태진아, 전영록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div> <div>문의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72</div>
<div>日 하마마츠시 엑스포 참가 MOU</div> <div></div> <div>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가 일본 하마마츠시와 지난해 12월 18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참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직위와 하마마츠시는 이번 체결식을 통해 2009 모자이크컬처세계전과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상호 참가하고 활발히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조직위 유치단은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나고야시, 고베시, 기타큐슈시, 후쿠오카시 등을 순회하며 엑스포 유치활동을 전개했다.</div> <div>문의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 ☎ 440-7800</div>		<div>송도에 무비 테마파크</div> <div></div> <div>2010년 송도유원지 인근에 무비 테마파크가 세워진다. 지난해 12월 13일 대우차판매매와 세계적인 영화사 파라마운트가 송도에 국내 최초로 무비 테마파크를 설립기로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무비 테마파크는 대우차판매매가 보유하고 있는 송도 49만9천500㎡ 부지에 세워지며, 올해 7월 공사를 시작해 2010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무비 테마파크에는 영화 재현 스튜디오를 비롯해 키즈 스튜디오, 워터파크, 파라마운트 그랜드 호텔 등이 들어선다.</div> <div>문의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div>		<div>태국 방콕시 공무원 방문</div> <div></div> <div>우리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어온 태국 방콕시 공무원 45명이 지난해 12월 7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방콕은 동남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유엔 산하기구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등 국제기구가 포진해 있어, 우리시가 추진하는 국제기구 유치 등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도시다. 방콕시 공무원 일행은 이번방문을 통해 보건정책을 연수받고 관련기관에 방문했으며, 경제자유구역 현장과 인천대교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우리시의 발전상을 확인했다.</div> <div>문의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5</div>		
<div>2012년 전국체전 개최</div> <div></div> <div>2012년 우리시에서 제93회 전국체전이 열린다. 우리시는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실사를 거쳐 전국체전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인천에서 전국 체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시는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단을 구성하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경기장 신설과 선수 수송 대책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div> <div>문의 시 체육진흥과 ☎ 440-4073</div>		<div>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지원확대</div> <div></div> <div>우리시는 올 1월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장애 1·2급 및 정신지체 3급, 발달 장애인 등 6천700여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 12만원은 시의 보조수당과는 별도로 계속 지급된다. 한편 올해 인천시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모두 301억원이다.</div> <div>문의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62</div>		<div>아름다운 특화거리 조성</div> <div></div> <div>우리시가 올해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시내 5곳에 경관이 아름다운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지역별 특화거리는 남구 미추홀길(300m), 남동구 중앙공원길~미래광장 앞(3100m), 부평구 부평역~부평시장역(2130m), 계양구 계양구청~작전체육공원(800m), 서구 서구청~심곡사거리(580m) 등이다. 우리시는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징조형물, 분수, 화단 등을 설치하고 각종 가로시설물과 전선을 땅 속에 묻어 명품도시에 걸맞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동구 송림로터리~재능대 입구(320m), 중구 신평사거리~화교촌사거리(610m), 연수구 연수구청~BYC건물(590m) 등 3개 구에 특화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div> <div>문의 시 도시경관과 ☎ 440-4483</div>		<div>北 통일전선부장, 경제자유구역 방문</div> <div></div> <div>북한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일행이 지난해 11월 29일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북측 방문단은 첫 공식 일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갯벌타워 홍보관을 찾아,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인천의 발전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송도신도시 매립지와 인천대교 등의 건설현장을 조망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시찰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북한과 인연은 연계가 깊다”, “서해특별지대가 형성되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div> <div>문의 시 국제협력관실 ☎ 440-3842</div>

굿인천 굿뉴스		G o o d M o r n i n g I N C H E O N		G o o d M o r n i n g I N C H E O N		군·구 소식			
<div><div>에너지 절약형 도시건설</div><div>우리가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만든다. 우리시는 지난해 24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대중교통 지향형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신축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오는 2013년까지 진행되는 5개년 지역 에너지계획과 맞물려서 올해 안으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div><div>문의 시 에너지정책과 ☎ 440-4422</div></div>		<div><div>공무원 전용, 사이버 영어과정 운영</div><div>인천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인천시공무원 전용 사이버어학센터를 구축하고 올 1월부터 사이버영어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우리시가 지난해 3월에 수립한 ‘공무원 사이버 영어 교육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소속 공무원 중 만50세 이하 약 2천300여명은 향후 4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인터넷을 통한 영어회화 학습을 하게 된다. 또 기본교육을 마치면 각 레벨 별로 성적우수자를 선발해 다각적인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이버영어 교육 실시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div><div>문의 시 지방공무원교육원 ☎ 440-7672</div></div>		<div><div> 중구</div><div>삼치의 거리 간판시범사업 지원 대상지 선정</div><div>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08년 간판시범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지원계획’에 따라 ‘중구 삼치의 거리’가 간판시범사업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중구는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안에 ‘간판이 아름다운 추억의 거리’를 재정비한다.</div><div>문의 중구청 ☎ 887-1011</div></div>		<div><div> 송현근린공원</div><div>동구 생태공간 탈바꿈</div><div>동구에 자연생태환경을 갖춘 친수공간이 조성된다. 동구는 공유지인 송현근린공원 내 배수지 아랫길 5천여㎡의 자연지형을 활용해 분수, 생태연못, 수생식물, 관람데크 등을 만들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초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입찰공고 및 착공에 들어가, 올 하반기까지 새로운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이다.</div><div>문의 동구청 ☎ 761-0151</div></div>		<div><div> 송의동</div><div>남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div><div>남구는 송의동 낙후지역의 개선을 위해 시에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지정을 건의했다. 대상지역은 송의1동 350, 360 등 9천452평으로, 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면 주민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지정여부는 내년 6월에 결정된다.</div><div>문의 남구청 ☎ 887-1011</div></div>	
<div><div>자원봉사 명예공무원 위촉식</div><div>지난해 12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명예공무원 위촉식이 있었다.</div><div>이날 명예공무원으로 위촉된 시민 194명은, 동사무소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의 다리역할을 하며 무보수로 교대 근무하게 된다. 현재 우리시와 10개 구·군 자원봉사센터에는 모두 28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div><div>문의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73</div></div>									
우리시 ‘상복 터졌네’									
<div></div> <div>2007년 대통령상 등을 6개 분야를 수상했다.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늘리기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작년까지 전체 추진계획 중 58%에 해당하는 581만㎡의 숲이 조성됐다. 그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킨 공로가 인정돼 상을 수여받게 됐다.</div> <div>▶▶재정운영 대통령 표창 수상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 재정운영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가 전남도,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와 함께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우리시는 재정운영이 크게 개선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받게 됐다.</div> <div>▶▶충무훈련 최우수, 대통령 표창 수상 ‘2007 후기 충무훈련’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충무훈련에서 훈련인원 362명과 함정 16척, 헬기 2대 등을 동원해 대형 여객선 테러대비훈련을 실시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div> <div>▶▶전염병관리·금연클리닉, 최우수기관 선정 ‘2007 보건복지</div>		<div>부 16개 시·도 종합평가’에서 전염병관리와 금연 클리닉 등 2개사업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아 이같이 수상했다.</div> <div>▶▶환경부장관 기관표창 선정 환경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1회용 종이컵 줄이기’ 전국 시·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받았다. 우리시는 시청과 사업소를 비롯한 지자체의 직원 92% 해당하는 1만4천500명의 참여를 이끌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div> <div>▶▶시 홈페이지, 국무총리상 수상 우리시 웹 사이트(www.incheon.go.kr)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전국 행정기관 대상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우리시 웹 사이트는 효율적인 메뉴 구성과 검색엔진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div> <div>▶▶옥외광고관리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옥외광고개선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2007 옥외광고관리 선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우리시는 디자인된 입체형 간판 문화로 옥외광고에 대한 의식을 바꾼 것을 인정받아 이같이 수상했다.</div> <div>▶▶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 농림부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활성화 추진실적’ 전국 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시는 농업환경 기반을 보전하고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div>							
		<div><div> 계양구</div><div>금연클리닉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div><div>계양구가 ‘2007 금연클리닉사업평가’에서 전국의 기초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계양구 보건소는 2007년 1월부터 금연결심 기간을 지정·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알리기 위해 버스 승강대 40개소를 이용, 보건소 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홍보에 주력해 왔다.</div><div>문의 계양구청 ☎ 551-5701</div></div>		<div><div> 노인문화센터 개관</div><div>서구 서구 가좌동 2-4번지 일원에 노인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문화센터는 대지면적 882㎡, 건축면적 1천332㎡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지어졌다. 사업비는 2천767백만원이 투입됐으며, 주요시설로 강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이 있다.</div><div>문의 서구청 ☎ 562-5301</div></div>		<div><div> 옹진군</div><div>백령도에 통합형 복지관</div><div>옹진군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통합형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범 건립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백령면 진촌리 부지 2천116㎡에 지상 3층 건축면적 1천980㎡ 규모로 재가노인시설, 어린이집, 청소년교실, 방과후 교실 등을 갖추어 올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div><div>문의 옹진군청 ☎ 899-2114</div></div>			
		<div><div> 강화군</div><div>강화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div><div>2015년 강화 해협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들어선다. 강화조력발전소는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4개 섬을 총 연장 7천795m의 조력댐 방조제로 연결하고 25.4mw짜리 수차발전기 3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 조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1천536GWh의 전력을 생산해, 연간 357억~989억원의 발전연료 수입대체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div><div>문의 강화군청 ☎ 930-3114</div></div>							

2008년도 예산과 조례안 가결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제160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2008년도 예산과 조례안 등을 가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2008년도 인천시 예산을 5조5천109억6천500여만원으로 확정가결하고 각 위원회별로 올라온 총 49건의 조례안 가운데 원안가결 24건, 수정가결 17건, 보류 4건 등으로 처리했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수정가결 했다. ▲ 문교사회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안’,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시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수정가결 했다. ▲ 산업위원회는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수정가결 했다. ▲ 건설교통위원회는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도시관리 계획(대학) 결정(폐지)안’과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지구 진입도로)결정(변경)안’ 등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했다.

박 의장, 역대 의장들과 간담회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장이 역대 시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임 의장들과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및 의정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제5대 제1기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관심으로 지켜

본 전임 의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인천시의회가 지난 1년6개월간 진행한 주요 의정 성과를 설명했다. 이에 전임 의장들은 2014 인천아시아게임 유치와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길 당부했다.

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인천지역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여성기업지원 위원회’가 설치된다. 산업위원회는 김성숙 의원이 발의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제6차 본회의에 상정시켜 원안수정가결했다. 여성기업지원 위원회는 향후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 및 지원 실적에 따른 확인·평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업은 시가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받고, 시와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금융 혜택도 받게 된다. 또 시 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우선 선정 대상으로 선택받게 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장려

지난해 12월 6일 ‘인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전용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수 처리 상황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릴 방침이다.

시의회, 태안 방제봉사활동 나서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장 및 시의원을 비롯한 의회 사무처 간부직원 등 50여명이 지난해 12월 13일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피해복구에 나섰다. 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일행은 먼저 태안군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기름유출 피해상황 및 방제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태안군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소원면 파도리해수욕장에서 방제봉사활동을 했다.

시의회, 송년회비 성금 기탁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의원 송년 간담회 비용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시의회는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학생 16명을 선정, 의정비에서 매달 5만원씩 모아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나눔 운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시의회 장학생 지원 규정’을 제정, 운영할 예정이다.



7월부터 인천시민 뱃삿 30% 할인

올 7월부터 인천시민이 우리시 앞바다 섬을 오갈 때 여객선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산업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인천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의 심의를 열고 시민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의 적정선 유지를 조건으로 원안 가결시켰다. 우리시는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제주를 제외한 13개 노선의 인천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때 요금의 30% 정도를 할인해 주고, 이를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시의회, 한복착용 장려

인천시의회가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제6차 본회의에 상정시켜 원안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복식을 입고 문화시설이나 유적을 입장할 경우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시립 체육시설이나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및 전시, 인천지하철 구간 요금 등을 할인받게 된다. 이 조례는 올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인천-타이거항공사 설립 원안가결

인천시의회는 승인으로 올 6월 인천-타이거항공이 국내선 취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6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상정한 “인천지역 항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시의회의 승인에 따라 시는 공동사업자인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SPC 설립등기를 마치고, 올 2월 본 법인인 인천-타이거항공을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시의회 홍보팀 ☎ 440-6052

자전거조례 제정의 필요성

허식 · 인천시의회 의원



2006년 2월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2007년 10월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前) 부통령 엘 고어는 저서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의 관행대로 살아간다면 50년도 안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로 늘고 경작지의 토양수분은 35% 이상 날아가, 농업생산량이 줄고 심각한 식량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이용이 꼽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유발하는 3분의 1가량이 자동차·트럭·비행기이고 그중 90%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두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조선일보는 ‘지구가 뜨겁다’라는 제목의 현장르포를 3회에 걸쳐 시리즈로 게재했다. 여기서도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문명의 이기로 전락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은 자전거에 의한 교통분담율이 25% 이상인데 이를 45~50%까지 끌어올려 공해, 소음, 주차난, 교통난, 교통사고 등에서 벗어나고 건강 증진을 통해 의료보험에 산의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공영자전거 대여 서비스(벨리브)’란 시민자전거개념을 도입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 서울은 자전거도시임을 선포하였으며, 송파구를 시범지구로 운영하다가 서울시 전역으로 무료대여시스템을 갖추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케 됐다. 이미 자전거조례도 금년 5월 제정하였다. 한마디로 자동차도로의 확장보다는 자전거도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과 수도 서울의 정책이다.

우리시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지난해 10월 19일 ‘2007 인천환경축제’ 개막일에 맞춰 개최해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자전거의 개념도입과 대여소·정비소·보관소 운영에 관한 조항, 경제자유구역·구도심 152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용적율(2% 이내) 등의 인센티브 제공, 4차선 이상 도로 신설·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의무화, 지하철역 내부에 자전거 전용 개찰구·전용칸 설치방안, 전담부서 설정 등이 타시도 조례와의 차이점이다.

2008년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은 강화 일주 자전거도로 50억원, 연수구 10억원, 월미도 일주자전거도로 10억원, 기타 지역(공단) 30억원으로 산정하여 조례제정과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의 시민들도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키 위해 불편한 생활방식을 감수해 나가면, 향후 5년 적어도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전에 인천은 자전거를 활용한 교통혁명, 공해에 찌든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환골탈퇴(換骨脫退) 할 것으로 확신한다.

시각을 알리던 옛 소리들

종^鐘과 오포^{午砲} 그리고 사이렌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

제야(除夜)의 종소리를 들으며 무자년 새해를 맞았다. 종을 쳐서 백성들에게 시각을 알렸던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조선 시대에는 그를 ‘인정(人定)’이라 했다고 한다. 서울의 보신각 종을 비롯해 전국 각처의 요충지와 큰절에서는 2경(二更)인 10시를 기해 종을 28번 쳐 통행 금지를 알렸다. 반면에 5경(五更)인 새벽 4시경에 33번 치는 종은 파루(罷漏)라 했다.

인정이 울리고 나면, 순라군은 화재, 도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 안을 돌았고, 통금 위반자를 잡아들였다. 초경과 5경 위반자는 곤장 10대, 2·4경은 20대, 3경은 30대에 처할 만큼 규율이 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8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녀별로 따로 시간을 정한 이색적인 야간 통금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이 제도는 자취를 감추었다. 경찰과 헌병의 엄혹한 감시 아래서는 별도의 통금 제도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정과 파루도 있을 리 없었다.

그 무렵, 인천도호부 청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문학리(文鶴里·지금의 남구 문학동)에서 한참 떨어진 포구(浦口) 제물포가 개항장으로 열리면서, 제물포는 1883년 이후 인천읍내 문학리를 제치고 일약 인천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일본, 청국을 비롯해 영국, 러시아,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선교사, 외교관, 상인, 군인, 학자 등이 속속 들어왔고, 더불어 제물포에는 그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서구의 신문물이 하루아침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나날이 늘어갔다. 전국 각처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어 북적거렸고, 상업이 번성해짐에 따라 시간을 다투어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노동 활동이 왕성한 낮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해의 위치를 따져 시각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만, 시계가 흔치 않을 때라 정확한 시각을 알 수는 없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낮 시간의 정점인 정오를 알려 휴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시보가 오포(午砲)였다.

지금의 중구 자유공원 제물포 고교 뒷산인 인천측후소 앞에 대

포를 걸어놓고 낮 12시 정각에 대포 한 방을 허공에 쏘, 그 소리로 정오를 알렸던 것이 오포였다. 옛 로마 때부터 시작된 오포가 우리나라에서는 1906년 2월 인천 제물포에서 부활한 것이다.

고로(古老)들의 말씀으로는 ‘쿵’ 하는 대포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인천부(仁川府)가 들썩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근대 문화의 이식 과정이 대부분 그렇듯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비일비재했다. 어떤 때는 15분이나 지나도 대포가 울리지 않아 빈축을 샀고, 오발로 관측소 소속 오포수(午砲手)가 손가락을 8개나 잃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오포는 지금의 자유공원 흥예문 위에 있던 인천상비소방소의 감시탑에서 사이렌으로 시보를 알리던 1925년까지 건재했다. 점심때가 되면 인천 하늘에는 무슨 공습경보를 알리는 듯한 긴 사이렌 소리가 정오를 알렸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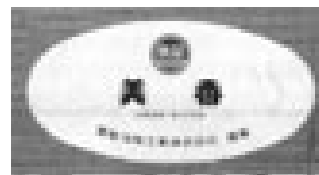
광복 후, 사이렌 소리는 정오가 아닌 자정에 울리게 되었다. 1945년 9월 7일, 미 군정청이 치안 유지를 위하여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통행금지 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금 사이렌 소리는 인천의 밤하늘을 매일 엄습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천의 중심지는 지금의 중구 일원이었다. 외곽 지대인 도원동에서 주관역에 이르는 길에는 염전과 논밭들만이 무인지경으로 이어져 있었다. 경동 싸리재, 내동 양품점거리, 신포동 시장, 송학동 자유공원, 해안동 선창가는 이름만 들어도 파스텔 물감처럼 추억이 묻어나는 곳들이다.

통행금지가 해제된 것은 1982년 1월 5일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6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그와 더불어 한겨울 바람과 함께 골목길을 헤매던 ‘메밀묵!’ 소리와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 자정이 되면 은은히 울리던 답동성당의 종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초고층 아파트와 우후죽순으로 솟아오른 빌딩들이 문화와 역사 혹은 추억에 얽힌 정다운 소리들을 모두 가두거나 거두어 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그간 살기에 바빠 우리는 정작 ‘삶의 스카이라인’ 조차 생각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나 후회하게 된다. 🐦

애경 비누 이야기



1883년 개항 직후, 인천에는 서양의 증기선들이 싣고 온 박래품(舶來品)들로 넘쳐났다. 그 중에서도 비누, 거울과 함께 비누는 조선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귀물 중 귀물이었다. 아름다워지려는 것은 동서고금 여인들의 영원한 꿈이 아니었던가?

신식 ‘비누’가 날개 돋힌듯 팔리자, 인천 거주 외국인 몇몇이 돈 벌 양으로 1895년에 비누 공장을 차렸다고 하나 이야기만이 전해지고 있다. 정작, 비누가 인천에서 생산된 것은 1912년, 지금의 중구 송월동에 ‘애경사(愛敬社)’가 세워진 후부터였다.

이 회사는 화장비누와 세탁비누를 대량 생산한 유지 공업계의 선두 주자였다. 광복 후인 1954년 채몽인 씨가 종업원 50명과 함께 이 회사를 인수해 ‘애경유지공업(주)’을 세웠다. 첫째는 세탁비누만 생산했으나 이듬해부터 국내 유일의 화장비누인 ‘미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58년 애경유지는 미향 비누만 한 달에 1백만 개씩을 팔아 인천과 서울을 왕래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애경유지’ 것이었다는 일화를 남겼다. 1962년, 경쟁이 치열해 지자 ‘애경유지’는 본사를 영등포로 이전해 갔고, 오늘의 ‘애경그룹’으로 성장했다. 본 고향이 인천이었던 ‘우유비누’, ‘트리오’ 등은 오늘날 우리네 생활 명품으로 기억되고 있다.

강도(江都) 하늘에 고려가 어른거린다

— 김차영의 강도의 하늘

글 · 김학균 시인

‘60편이나 골라 묶은 시집이지만 물에 잠겼던 벼이삭처럼 시어에 쪽정이가 섞이고 어떤 것은 아예 감부기처럼 변종된 것 같게도 느껴져 스스로 무게를 잃고 있었다. 생각하면 시와 더불어 살아온 50년. 시를 읽고, 생각하고 써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면서도 아직껏 시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까닭은 무슨 이유일까. 시란 이런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문에 쓰게 된다.’

시인 김차영이 1989년에 간행한 시선집 ‘얼굴, 그 얼굴들의 여울’의 발문 없는 후기의 일부이다.

시는 씨앗과 같아 뿌린 뒤 싹을 틔우기까지 관리가 필요한

처럼 시인은 농부와도 비교된다. 한해를 논과 밭에

정을 쏟아 농사한 후 가을걷이 하는 것

처럼 시인 역시 시전(詩田)에 뿌린 씨

를 거두기 위하여 끝없이 다듬어 탄

생시키는 언어의 농부 같다고 하면 이

해가 될 듯 싶다. 평생을 시 작업에 몰

두한 시인 김차영의 말 속에는 시인

으로서의 몸가짐이 꼭 찬 말로 훗

날 후학들에게 본받음의 원천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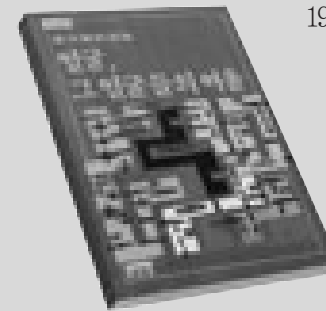
로 지금껏 정표로 남아있다.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은 우리 민족에 의해 충분히 준비된 것 없이 이루어졌다. 감격과 함께 혼란과 분열 속에서 자생하기 시작한 문학은 또 다른 이념의 고리를 물고 생몰(生沒)하는 현상의 시대, 즉 해방공간의 문학 속에서 김차영의 행적은 누구보다도 인천을 위한 문학의 길이었다.

1991년 「학산문학」 창간기념 ‘인천문화의 재건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좌담이 인천문학사를 논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이정표의 몫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예술가협회’ 회원으로 ‘인천예술인회’, ‘문충 인천지부’ 회원으로 이인석, 조수일 등과 함께 활동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문충구국대’를 다시 결성해 표양문, 조병화, 이정성, 최성연 등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심상들을 그렸으며 월북 작가들과도 교류한 시인으로 문학역사의 편린들을 잘 간직한 시인이다. 김동석, 현덕 그리고 배인철 등의 문사들이 시인의 주변에서 동거동락 한 사람들이다.

동인지 「문예탐」과 「동화세계」를 1945년 11월에 만들어 전국 최초의 동인지란 별칭을 얻은 김차영은 ‘대중일보’에 입사하여 극작가 진우촌과 엄홍섭, 윤기홍과 더불어 창간주역으로 지방언론의 정표를 세웠으며 언론인으로서의 행로를 열게 되었다.



1922년(2006년 암으로 별세) 강화군

길상면 출생으로 일본의 리쓰메이

칸(立命館) 대학을 수학하고 귀국

하여 인천중공업(주)에 다니며

「조광」, 「신세대」에 작품발표

를 하면서 문단에 나왔으며

광복 후 「문예탐」(45년, 11월)

과 「시와 산문」(46년, 3월)을 한상익, 표

양문 등과 함께 만들며 일찍이 모더니즘 시운동에 참여해 박인환, 김경린과 더불어 같은 길을 걸었다.

동란 때는 부산으로 피난하여 「후반기」 동인으로, 환도 후에는 「다이얼」 동인으로 인간의 추상적 심리 묘사에 역점을 둔 시를 발표하며 기하학적인 추상세계를 조형, 시의 방법론을 현대화하는데 일조했다는 평을 들었다.

1946년 대중일보, 48년에 인천신문, 49년, 50년 한국통신을 거쳐 대한매일신보, 동양통신 정치부장으로 국회출입기자 활동, 퇴직 전까지 상공회의소 홍보부장으로 언론의 길에서 시심을 달랜 시인이다.

한국문협과 펜클럽 이사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상아환상’(69년 삼애사 간) ‘부릅뜬 돌풍의 눈’(84) ‘얼굴, 그 얼굴들의 여울’(89, 명문당 간)이 있다.

현대시의 첨단을 끈질기게, 꾸준히 추구해간 시인의 고향 강도(江都)로가 하늘을 보자. 고려의 하늘이 보이고 청자의 비색이 어른거리는 강화도, 외세의 침입에도 때 묻지 않은 곳에 시인은 살아있을 것만 같다. ♡

江都의 하늘

하늘에는 아직

고려가 어른거린다

고려의 하늘 한뼘박 퍼다가

백토 버무려 도요에 구우면

영원 그보다 머언 곳으로

비색 무궁한 색깔

행여,

어찌다 잔 바람결로

氷裂 할까 두렵구먼

아으, 가슴앓이 갈구나

아리한 색깔

江都의 하늘은

맑은 얼음판 같은데

한 점 구름처럼

고려가 어른거린다.



살이 키가 될까요?

비만아가 세계적인 추세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5%, 미국에서는 20%의 소아가 비만이며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라고 경고했다. 방학을 맞아 우리 아이들을 비만으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Q 소아비만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신적, 생리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정신적 손상은 소아의 비만이 가족간의 유대관계, 친구사이의 관계에 장애를 주고 나쁜 자아관을 갖게 한다. 생리적 손상은 중등도 이상의 심한 비만에서는 소아기에 이미 높은 빈도로 합병증이 존재하는데 고도 비만아의 경우 고지혈증이 60%, 간기능 이상과 지방간이 30%, 그 외 고혈압과 당뇨병, 혈압증가, 고인슐린혈증이 동반하였다. 이러한 비만 영아와 소아들은 치료가 간단치 않고 치료효과 또한 일시적이어서 80%에서 성인비만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조기발견, 조기치료, 그리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소아비만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A 비만은 체내에 지방조직, 특히 피하지방이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비만도를 계산하여 20~30%를 경도 비만, 30~50%를 중등도 비만, 50% 이상을 고도비만으로 분류한다. 비만도(%)=(실측체중-신장별 표준 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또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뉜 체질량 지수를 구한다음 85~94백분위수이면 비만 위험군, 95백분위수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 외 피부주름 두께를 재는 방법,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여 내장비만을 구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Q 소아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A 유전적 요인과 잘못된 생활습관이 상호 반응하여 발생한다. 최근 비만유전자가 발견되고 부모가 비만한 경우나 출생체중이 많은 경우 비만일 확률이 높아지는 등 유전적 요인이 있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는 과도한 음식섭취 및 고단백질과 고지방식사(특히 동물

성)로 구성된 고열량 인스턴트 식품, 청량음료 등의 식사구성, 아침을 거르고 한꺼번에 폭식하며, 야식을 선호하고, 빠르게 먹는 등 잘못된 식사습관과 TV와 컴퓨터 게임 등을 선호하면서 운동의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감소 등이 원인이다.

Q 소아비만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A 식사와 칼로리 조절, 적당한 운동, 아이들의 행동수정 치료에 가족들의 참여 등이다. 식사를 초록군과 노랑군, 빨강군으로 나뉜 오이, 당근, 배추, 김, 무, 레몬 홍차, 녹차 등 초록군은 제한 없이 섭취한다. 감자, 사과, 귤, 수박, 과일주스, 생선구이, 계란, 두부, 우유, 두유, 밥, 빵, 떡, 잡채, 고구마 등 노랑군은 정해진 양만 먹게 한다. 감자튀김, 아채샐러드, 과일통조림, 튀긴 육류나 생선(치킨, 돈까스), 고구마튀김, 도넛, 맛탕, 버터, 마요네즈, 설탕, 사탕, 꿀, 과자류, 케이크, 초콜릿, 양갱, 젤리, 유자차, 초코우유, 약과, 피자, 핫도그, 햄버거, 라면, 포테이토칩 등은 빨강군으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주 3~5회 낮은 강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운동을 1~2시간동안 하게한다. 그 외 행동요법과 심리치료가 있으며 소아에게 약물치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고도 비만아에 있어서는 12세 이상의 소아에게 오르리스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조절로 혈관내벽 두께 증가와 같은 초기 동맥경화증의 변화들이 감소되는 등 비만으로 인한 정신적 생리적 합병증을 치료할 수 있으며 체중감량이 안되거나 고도 비만아와 중후성비만의 경우 소아과를 방문하여 합병증의 관리와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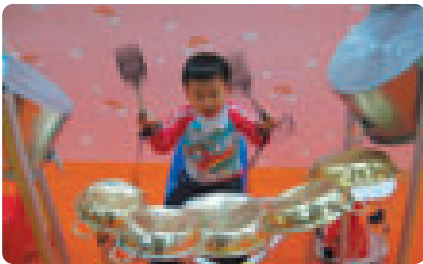
글 · 최석우 인천광역시 의료원 소아과 과장

할아버지와 손녀의 장기 열전
여든이 되시는 아버님은 어느새 훌쩍 커버린 여덟살 손녀딸과 장기를 두는 것이 낙(樂)이시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하시길 바랄뿐입니다.

유영자 | 계양구 병방동



추
장
원



나는야! 램비 드러머

찌그려진 램비와 부침 뒤집개를 이용해서 만든 악기랍니다. 나는야! 램비 드러머. 제대로 Feel 받아 흥분한 제 조가 너무 예쁘죠? 꿈이 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사랑스럽네요.

이혜진 | 동구 만석동



겨울날의 우정

겨울날 추운 그 녀석을 위해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휴일날 조용한 대공원에 혼자 앉아서 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빈공원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추위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이상렬 | 계양구 작전동



인천 SK와이번스 신화를 쓰다

인천 SK와이번스가 창단 8년만에 감격적인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들과 함께~.

김훈희 | 부평구 십정2동



음악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음악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성악가 김동규 씨를 만나서 사진을 찍자고 부탁드렸는데, 허락해주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현 | 서구 석남3동



함박눈이 펑펑

어렸을 적에는 함박눈이 내리면 집앞으로 뛰어 나가서 신나게 놀았지요. 훌쩍 커버린 지금은 눈 내린 다음 날의 빙판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박눈이 내리는 겨울을 기다리는 건 어쩔수 없나 봅니다.

이성현 | 부평구 부평3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1

미국의 유력 일간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IHT)가 선정한 살기 좋은 도시 20곳은 자타가 공인하는 매력적인 명품도시다.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로서는 이들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인정한 살기 좋은 도시 20곳, 그 선두에 서 있는 문화, 환경, 축제, 관광, 예술의 도시 뮌헨을 찾아가 본다.

글·사진 이형준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 저자



2

3



교통,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도시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지(IHT)에서 살기 좋은 도시 20곳을 선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은 것은 도시환경, 범죄율, 교육의 질, 기후, 국제적인 수준의 교통시설, 통신시설, 다양한 인종과 포용 정도, 여성취업, 교통비 등 11가지다. 이들 까다로운 기준을 종합하여 내린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독일 뮌헨(Munich)이다.

뮌헨을 한눈에 내려다보려면 마리엔 광장 앞에 우뚝 서 있는 성 피터 성당이 제격이다. 겨우 한 사람이 오르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좁은 계단을 오르면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난다. 높이 90m에 달하는 전망대에서 뮌헨을 바라보면, 뮌헨이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와 코펜하겐에 버금갈 정도로 청명한 도시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라는 현실이 무색할 정도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뮌헨답게, 성 피터 성당 전망대에서는 멀리 알프스 자락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높은 시야가 확보된다. 이처럼 남부 최대 자동차도시이자 독일을 총망라하여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잘 갖춰진 대중교통이 있기에 가능했다.

뮌헨의 대중교통은 무척 다양하다. 주요 도로에는 자동차와 함께 대기가스를 배출시키지 않는 트램이 운행되며, 땅 속으로는 S반과 U반이란 지하철이 도시와 외곽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관계당국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 성 피터 성당 천장에서 바라본 청명하고 고층스러운 뮌헨 도심풍경
- 2. 뮌헨을 대표하는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인 뉘펜부르크 성
- 3. 보행자 전용거리에 자리한 노천카페에서 차와 음식을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들



4. 뮌헨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 가운데 트램이 이동하는 선로
5. 바이에른 지방의 전통복장을 착용하고 나들이에 나선 시민
6. 시청사 광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과 관광객들
7. 드넓은 숲과 인공호수가 어우러진 뉘른베르크 성에 조성된 정원

한 장의 티켓으로 지하철, 버스, 트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기본이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선보이고, 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혜택과 편리함은 결국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만들었고, 자가용 운행감소는 도시를 대기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성 피터 성당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시청사는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최대 명소다. 마리엔 광장을 응시하고 있는 시청사가 뭇 사람의 이목을 끄는 이유는 웅장한 네오고딕 양식인 시청사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탑에 설치된 특수시계가 주요한 이유다. 춤추는 무용수, 웅감한 바이에른 기사, 어린이 악대와 꼬마 병정, 그리고 멋진 조각으로 구성된 특수시계는 매시간 10분씩 작동된다. 하루에 단 세

차례만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보려고 일찌감치 광장으로 몰려와 카페와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곤 한다. 시민과 관광객이 찾으면서 주변 상점가는 자연스럽게 성업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당국은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게 되고 세수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특수시계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면 시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프라우엔 교회는 뮌헨이 얼마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도시인지 잘 보여준다. 쌍둥이 탑을 간직한 웅장한 외관과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중세 화가의 흔이 녹아 있는 크고 작은 성화, 과거 이 지역을 다스리던 비테르스바흐 가문의 문장과 무덤까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뮌헨 최고 명소인 마리엔 광장에서 중앙역과 도심으로 이동하면 보행자 거리인 노이하우저를 따라 늘어선 건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를 취급하는 상점가에서 한 블록만 접어들면 끝없이 늘어선 주택가를 만나게 된다. 이 곳에서 살려면 유럽 어느 도시에 비해 엄청난 주거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시민들은 도심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 바로 시간절감과 쾌적한 환경 때문이다.

뮌헨 도심은 슬럼화와는 거리가 멀다. 뉴욕이나 LA처럼 거대한 도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고 있다. 물론 일부지역은 주의를 요해야할 곳도 있지만 이런 곳에는 어김없이 경찰이 순회하여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고 있어 어느 대도시보다 안전하다. 뛰어난 치안은 결국 활동적으로 경제활동에 매달려야하는 사람들을 도심에 머물게 만들었고, 그 결과 뮌헨이 어느 도시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쾌적하고 낭만적인 분위기 또한 시민들을 도심에 머물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도시에 대해 느끼는 자긍심과 애정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어느 도시도 만족도가 50%를 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뮌헨을 비롯한 취리히, 코펜하겐 같은 살기 좋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80~95%에 달하는 만족도를 나타낸다. 살기 좋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토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문화다. 뮌헨은 지방자치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독일에서조차 독특한 문화를 많이 간직한 곳으로 유명하다.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지구촌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옥토버 축제를 비롯해 정열적인 예술가와 젊은이들이 모이는 슈바빙, 왕가의 화려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레지덴츠 궁전, 왕가의 별장이자 성으로 사용했던 뉘른베르크, 세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문화가 너무도 많아 스스로 뮌헨을 ‘이자르 강가의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다. 그 만큼 문화적 수준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동시에 스스로 갖는 자긍심 또한 대단하다.

살기 좋은 도시의 맨 앞에 서 있는 뮌헨. 그곳에 가면 유럽의 환경, 경제, 관광, 예술 그리고 낭만을 한번에 느낄 수 있다. 🍀

밖은 영하 5도 안은 영상 15도

울겨울이 예년에 비해 덜 춥다고는 하지만 겨울은 겨울인 법. 선뜻 밖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때다. 방학이라고 어디든 놀러가자며 목을 빼고 기다리는 아이들, 겨울 추위에 맞춘 데이트장소를 찾기 어려운 아베크족들, 한시라도 운동을 게을리 하면 몸이 근질 근질한 스포츠 마니아들. 그들에게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이 겨울이 더욱 신난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셀카족에 딱 인천공항 교통센터

공항은 여행의 출발점이자 마침표이지만 굳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놀이터 삼아 둘러보기 좋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3월 공항철도가 개통하면서 공항에는 여객터미널과 인천공항역을 잇는 교통센터가 생겨 여행객은 물론 셀카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인천지하철 계양역에서 연결되는 공항철도에 오르면 27분 만에 인천국제공항역에 닿는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면 마치

로 조성돼 있다. 우리나라 야생화와 자연석으로 꾸며진 자생 초화원,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칼라 가든, 제주도 남쪽 섬에서 자생하다 멸종된 나무고사리로 조성된 아열대원, 수정정원, 시원한 대나무터널 등이 아기자기한 동선을 따라 들어서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 커다란 여행가방을 끌고 가던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서운한 눈치다. 가방을 한쪽에 밀어 놓



SF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승객들을 여객터미널과 연결해주는 교통센터의 그레이트홀이다. 교통센터 2층에는 1천660㎡규모의 실내정원인 스타가든이 꾸며져 있어 웬만한 식물원 못지않다. 인천국제공항내 실내정원 중 가장 큰 규모인 이곳은 테마를 정해 다양한 공간으



고 미니홈피에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바깥 기온과는 상관없이 식물들이 내뿜는 산소와 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작은 폭포, 그리고 줄줄 흐르는 시냇물의 청량함이 더해져 지금 이 한겨울인지, 따뜻한 봄날인지... 잠시 착각에 빠진다.



‘뽕~’ 썰매 탄 후 몸 녹이기 최고 인천대공원 식물원

누구나 집에서 입던 옷차림 그대로 부담 없이 찾아 나설 수 있는 곳이 인천대공원이다. 봄같은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해도 대공원 정문에서 두백미터 호수까지 걸어온 이들이라면, 추위로 목이 자라처럼 움츠러들고, 바람으로 볼이 바알깡게 돼 버렸을 터. 이럴 때 호수 왼편의 식물원으로 쏙 들어가면 어느새 추위가 눈처럼 녹는다. 제주도의 이미지 식물원이나 무슨무슨 사립 식물원을 생각

0 한걸음 더 -----
공항까지 왔는데 여행 다녀온 기분을 내려면 공항을 배경으로 멋진 기념사진 한 장이 제격이다. 이럴 땐 여객터미널 1층 중앙에 있는 밀레니엄홀로 발길을 돌려보자. 나무와 풀, 작은 연못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공항 기념촬영 명소가 바로 이곳이다. 겨울에는 반짝거리는 전구로 나무를 장식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찾아가는 길 -----
인천지하철 계양역에서 내려면 공항철도와 연결되고, 인천공항역에 내려면 교통센터다. **운영시간** : 새벽 5시 27분~밤 11시 46분까지, 매시 정각 직통열차 운행 **소요시간** : 27분 / **요금** : 인천공항역까지 2,600원

하고 대공원 식물원을 찾았다면 실망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지난 96년 문을 연 이래 대공원 식물원은 흙냄새를 맡으려는 이, 열대 식물을 보려는 이, 전문 촬영가용 사진기로 ‘접사’의 재미에 빠져보려는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식물원은 1온실과 2온실에서 총 92과 332종 6천550본이 키 재기를 하며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열대과수가 35종, 관엽식물이 131종, 여기에 지피식물과 남부식물, 수생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이 식물원을 채우고 있다. 정문을 들어서 왼편의 2온실에서는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다육식물은 5~10℃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온실에 들어서면 여름에는 서늘한 느낌이지만 지금 같은 겨울에는 포근함이 가득하다. 정문 오른편의 1온실에는 바나나, 구아바, 두리안 등 이제는 우리들에게 친숙하지만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것이 분명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겨울에도 15~17℃정도가 늘 유지된다. 1온실과 2온실을 합해도 800㎡ 남짓이라 넓지 않지만 구석구석 돌아보고 사진을 찍기에는 손색없다. 식물원은 대공원이 문을 여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고, 월요일은 쉰다.

0 한걸음 더 -----
겨울에는 역시 썰매같은 바깥 레저가 최고라는 이들은 인천대공원 눈썰매장에서 추위에 맞설 수 있다. 1만7천451㎡면적에 3개의 슬로프, 2대의 무빙워크가 설치돼 있어 수준에 맞는 활강을 즐길 수 있다.

찾아가는 길 -----
고속도로 :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나들목을 나오면 인천대공원이 인근이다. **시내버스** : 8번, 11번, 14-1번, 15번, 16번, 30번, 103번(좌석) 정문에서 하차 **문의** : ☎ 440-4952



인공섬에서 스포츠를 송도 자원환경센터

암벽등반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김규창 (44· 연수구 연수동)씨는 겨울이라 암벽등반을 할 수 없었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운동을 즐기고 있다. 그가 찾는 곳은 연수동 LNG기지 내에 자리 잡은 송도자원환경센터다.

송도에서 소래로 향하는 해안도로 끝에서도 7.8km를 들어와 자리잡은 인공섬에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세워진 것은 지난해 7월.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원 및 스포츠 시설을 갖춘 주민편익시설로 센터를 조성했다.

특히 종합스포츠센터는 남녀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우나와 25m에 6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 3코트의 스쿼시장, 런닝머신과 헬스기구 일체를 갖춘 헬스장, 인공암벽, 잠수풀까지 골고루 들어서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겨울의 추위가 찾아온 때에 찾은 수영장은 여느 수영장보다 따뜻한 느낌이다. 소각장에서 남는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비 걱정없이 여유있게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호익 소장의 설명이다. 6개 레인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쿠아로빅과 자유수영이 한창이고 옆에 있는 유아풀에서는 물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몸을 담구고 있다. 때맞춰 남부소방서에는 구조훈련을 위해 잠수풀을 찾았다. 수심 5m의 잠수풀은 수도권 인근에서는 시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말이면 스킨스쿠버 연습을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스포츠센터 1층 한 편에는 인공암벽장이 암벽등반을 하는 이들로 붐빈다. 산을 찾고 싶어도 추위로 움츠러들기 쉬운 때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데다 근력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돼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다. 15m 높이의 인공암장은 초급, 중급, 상급 코스로 구분돼 있어 수준에 맞는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또 2층의 스쿼시장과 헬스

장도 꾸준히 이용객들이 드나드는 모습이다.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종합스포츠센터가 사랑받는 데는 저렴한 가격도 한몫한다. 성인 기준 하루 1,500원이면 잠수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맘만 먹으면 하루 종일 즐기기도 가능하다. 지난 9월 8일부터 인천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박정남)이 스포츠센터를 인수해 주민편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덕분이다.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동막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찾아가는 길-----
고속도로 : 해안순환도로를 타고 소래방면으로 향하다 LNG기지 전용 도로로 우회전
셔틀버스 : 동막역에서 7시30분~저녁 10시까지 매시 30분 출발
문 의 : ☎ 820-7350(http://ser.incheon.go.kr)

시설명	이용방법	요 금
실내수영장	인터넷예약	성인 1,500원
헬스 및 사우나	(http://ser.incheon.go.kr)	청소년 1,200원
스쿼시장	미예약자 선착순 이용	어린이 1,000원
실내인공암장	인터넷예약, 전화예약	
잠수풀		4,000원



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즐겁게 춤연습을 할 수 있게 했다.

그 뿐 아니다. 인천시청역이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지난

해 12월 22일에는 배틀챔피언십이 인천시청역 오딧세이 광장에서 열렸다. 소울섹터, m.b.crew 같은 30개의 프로 B-boy팀을 비롯해 아마추어 B-boy팀이 참가해 퍼포먼스 대회와 배틀 대회를 펼쳤다. 1천여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그 춤을 감상하러 지하철역에 모여 추위를 잊고 문화향연에 흠뻑 빠졌음은 물론이다. ♪

청소년 숨통 틔워주는 끼 발산 터 지하철역사

인천지하철은 지난 1999년 개통된 이래 인천을 남북으로 연결해 주는 시민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인천지하철역은 '별' 이상의 역할을 한다. 바로 문화 공간이자 스트레스 해소의 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싶은 지하철역 한 편은 영낙없이 청소년들의 춤 연습장이 된다. 인천시청역도 마찬가지. 오딧세이광장이라고 불리는 지하 1층에는 많게는 하루에도 대여섯 팀이 번갈아 가며 춤 연습을 하느라 여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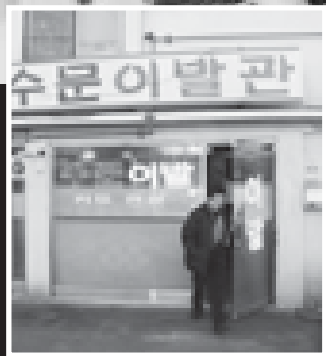
인천지하철공사는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춤 연습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춤 연습장을 따로 만들어 주었다. 인천시청역 지하 1층에 면적 66㎡에 이르는 3개의 춤 연습장이 마련된 것. 강화지굴과 강화마루바다를 설치해 위험한 곳에서 숨어

한걸음 더 -----
인천지하철역사에는 문화시설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인천시청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북카페가 마련돼 소설, 시집 등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기증받은 3천여권의 책이 청소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22개 모든 지하철역에는 독서마당이 꾸며져 있어 쉬면서, 기다리면서 부담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 한편 경인교대역과 계산역, 동수역, 인천시청역에는 시민탁구광장이 설치돼 리켓과 탁구공만 가져오면 누구든 무료로 탁구를 즐길 수 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향기를 맡다



동네어귀마다 돌아가던 이발소의 삼색등 보기가 어려워졌다. 이젠 남성들도 이발소에서 '깎지 않고' 미용실에서 '자르기' 때문에 이발관 혹은 이용원으로 불리던 이발소가 많이 없어졌다. 이발소에 가면 '아저씨', 미용실에 가면 '오빠'라는 유머가 시대상을 대변해 준다.

글 · 사진 · 유동현 본지 편집장

어릴적 이발소 안은 연통달린 연탄난로 덕분에 늘 따뜻하고 포근했다. 게다가 포마드 냄새까지 나면 묘한 나른함에 빠지기도 했다.

아, 그렇지만 아직도 개구리처럼 두 다리 쪽뻗은 '공포의 바리깡'을 생각하면 눈물이 찝끔 난다. 미숙한 견습생 이발사라도 만나는 날에는 정말 죽음이었다. 목에 가운을 두르는 순간부터 공포감은 밀려들기 시작했다. '쓱쓱...'. 시키면 말가죽에 접이식 면도칼을 갈 때 나는 소리도 두려움의 하나였다.

그래도 면도하기 위해 비누거품을 목덜미에 문지르면 행복했다. 거품 담뱃 문혀 난로연통에 비빈 부드러운 솔은 참 따듯했다. 물뿌리개로 머리에 물을 뿌려주고 빨래비누로 머리를 박박 감겨주면 오랜만에 시원함도 느꼈다.



까까머리 시절, 2부머리로 깎고 싶은 마음 굴뚝같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엄마의 매질이 두려워 작은 소리로 마지못해 얘기했다. "아저씨, 그냥 뽁뽁으로 밀어주세요".

명절이 다가오면 온 동네 아이들이 이발소에 몰려들었다. 누이들까지 이발소에 와서 단발머리를 자르곤 했다. 그래, 막내는 키가 작아 이발소 아저씨가 의자에 빨래판을 올려주곤 했지. 앞뒤로 몇장씩은 떨어진 만화책을 보며 순서의 지루함을 잊곤 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큰 거울 위 낡은 액자에 낀 시가 푸슈킨의 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전 송현동에서 삼색등을 내건 '수문이발관'을 발견하곤 고향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예전에 이발 기구를 넣는 약장, 머리에 물 뿌리는 조루, 접이식 면도기 등은 보이지 않았지만 옛 이발소의 분위기가 배어나 푸근했다.

이발소 사장 강신유씨가 이용자 자격증을 단 것은 43년 전. 현재의 자리에서만 32년째 가위질을 하고 있다. 요즘은 많아야 하루에 7, 8명의 손님이 찾아오고 있지만 30년 이상의 단골손님도 적지 않다.

이발소 그림의 대명사인 밀레의 '만종'이 이제는 걸려 있진 않은 그곳에서 오랜만에 아버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잠시 행복했다. ♡

시각 장애인의 등불
송암 박두성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내 이름은 콩쥐,
올해는 저와 함께 인천을 빛낸
인물들을 공부해 보아요~

“점자책은 쌓아
두면 돌출부가
망가지니 꼭아너
보관하라..”

송암
박두성 선생의
유언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종
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에 대해 알아보까요?

송암은 1888년 인천시 강화군에서
태어나, 강화 보창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그리고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어의동
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가 시각장애인들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13년 일본이 세운 ‘한국 관립 맹아학교’에
발령을 받으면서다.

교육에 어려움을 느낀 송암은 맹아부에 건의, 일본에서 점자 인쇄기를
들여와 한국 최초의 점자 교과서를 출판했다.

그냥 있는 책으로
가르치면 되지 말...

보이지 않는데 일반
책을 어떻게 읽는단
말이요!

이 아이들이
비록 시력을
잃었으나
우리말,
우리글까지
읽게 해줘야 안돼!

송암은 미국 선교사가 뉴욕 점자를 응용해 만든 평양 점자를 활용,
1919년 천자문 점역을 완성하였다.

그후 여러 불편함을 수정하여 마침내 1926년 ‘훈맹정음’을 완성,
발표하였다.

안타깝게도 훗날 그는 연구에 눈을 혹사한
탓에 시력을 잃고 말지만

훈맹정음은 한국 시각장애인들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

송암은 점자성경, 신약성경, 3·1운동 비사,
맹인 청년규약, 이광수 전집 등 200여종의
점역서를 발간 점자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45년 인천 중구 울목동에서 해방을 맞은 뒤 집에 ‘맹인 도서
안내소’라는 간판을 내걸어

시각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점자책을 나눠 주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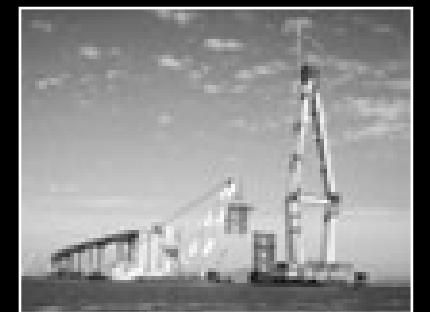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송암 박두성 선생은 1963년 생을
마감하였고,

인천시는 1999년 남구 학익동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 송암 기념관을 마련해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인천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인천대교’

김 · 수 · 홍

글 · 김 류 시인



이런 일도 있다. 한국 국민의 다리 ‘인천대교(仁川大橋)’를 인천 사람 후손이 맡아 짓고 있다.’ 웬만큼 큰 길을 닦고, 도크를 수리하고, 운동장 같은 것을 만들고, 새 공항을 세운다면, 의당 그것을 맡는 인물은 인천 사람이 아닌 타지 출신이어야 하는데 이번 공사는 중년 나이의 인천 원적(原籍) 김수홍(金壽弘) 사장이 맡은 것이다. 회사 이름도 인천대교주식회사(仁川大橋株式會社)라니. 필경 하늘이 그렇게 점지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인천 사람도 스스로 자기 삶, 자기 운명을 빚고 가꾸어 나가라고. 그러니까 한국 최대의 다리, 한국 국민의 다리, 인천대교를 놓는 이 일에 대해 인천 후예가 총책임자가 되었다 해서 우연한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인천은 서울 옆에 붙어 있는, 누가 생각해도 서울 위성시(衛星市)쯤으로 여겨서, 또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리저리 마구 모여와 사는 합중시(合衆市)여서, 매사에 굳이 토박이 인천 사람을 들춰 내세우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한국 최대의 역사(役事)를 맡은 인물은 그 자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선대(先代)들이 인천에 남긴 자취가 적지 않은 비종인 데다가 그의 집안이 영종도 2백 년 터주인 까닭에 더욱 감개가 있고, 더욱 의미가 있게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대에 걸쳐 영종에 살던 영종 사람 후대가 바로 영종과 인천 육지와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책임자가 되었다는 그 의미는 나름대로 심중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태훈(金泰勳) 씨. 개항 이후 인천항 정미업계의 거부로 이름을 떨친 <김태훈정미소>의 김태훈 씨가 바로 김수홍 사장의 할아버지인 것이다.

할아버지 김태훈 씨는 인천공립상업학교를 나와 인천항에서 미국 정미업이 한창 번창할 때인 1939년에 40세 장년의 나이로 당시 동업계 영업세 납부 실적 2~3위였던 당당한 신생 거부였다.

부친은 서울 경기고 출신이다. 일본 와세다대학 건축과를 나왔고 공군 시설감(施設監)을 역임했다고 한다. 좌절되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 시절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 국가적 사업을 계획하기도 한 인사로서 이름을 대면 누

구라도 이내 알 수 있는 분이다. 아마 오늘의 김 사장은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의 기질과 피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영국 기업의 책임자로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저 하나뿐일 걸요.”

그가 대표로 있는 인천대교주식회사는 영국계 다국적 개발회사인 에이멕(AMEC)이라는 회사가 인천대교 프로젝트를 위해 인천시, 그리고 재무투자자가 함께 투자한 합작회사이다. AMEC은 영국 제1위의 개발 및 건설업체이다. 거기서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인천대교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겸손한 듯하면서 매끄럽게 자신을 내보이는 화술, 웃는 모습 뒤에 날카로운 비판으로 좌중을 이끌어가는 매너, 능력. 영국인이 따라 오지 않을 수 없는 자신감, 추진력, 배짱 등등.

그는 훗날 모든 것을 글로 쓸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영국인 회사에서 꿈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걸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인만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꿈을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그래서 남북통일이 당겨질 것이라는 신념과 함께, 아직 남아 있는 청년 시절의 눈빛과 야무지고 자신만만한 커다란 손이 그를 더욱 앞으로, 앞으로 밀고 갈 것이다.

“격투기를 했지요. 어려서부터 무술 시범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벌써 12살 때 적벽돌을 깨뜨릴 정도였으니까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태권도, 유도, 복싱 같은 무술 운동은 모조리 연마했어요.”

아, 이런 무술의 내공이 그의 속에 있었구나. 정의감과 열성, 의욕과 감투정신, 그리고 냉철과 성실은 모두 저 두툼한 두 손과 그의 내공에서 나오는구나. 체력 단련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격무를 견디는 정신력, 그리고 명석한 판단력을 갖게 한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인천대교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1999년입니다. 우리 정부와 캐나다 아그라(AGRA)사가 인천대교 건설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면서부터이지요.”

김 사장은 그때 아그라 사 한국지사장이었는데 외자유치 사업으로 인천대교 건설을 양국에 제안하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다가 이 아그라사가 영국 에이멕 사에 합병되었던 것이다. ‘고향에 다리 하나 놓고 싶다’는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 그리고 판문점을 설계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마포아파트를 건축했던 아버지의 ‘영종도와 인천을 잇는 다리 건설’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의 사장교 상판 가설공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6일 건설교통부와 인천대교(주)에 따르면 인천대교(주)는 7일 오전 이용섭 건교부장관,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교 건설 현장에서 사장교 상부에 상판 가설 공사 착수를 알리는 상량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대교의 인천항 주항로 구간에 건설되는 사장교에 상판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하기는 교량 공사에 들어간 지 2년 반 만이다.

상판 가설공사는 강교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105m 상판을 바지선으로 현장에 운반한 후 3천t급 해상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는 15m 길이의 상판을 차레로 들어 올려 케이블에 매달아 가는 방식으로 시공하며 오는 2009년 2월까지 상판과 케이블 가설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대교 사장교의 주탑 설치공사는 높이 230m 가운데 190m 정도가 진행된 상태다.

건교부는 주 교량인 사장교뿐 아니라 복합트러스교, 하이브리드 중로아치교 등 다양한 형식으로 건설되는 인천대교가 현재 기초 공사를 끝내고 상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당초 계획한 2009년 10월 개통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인천대교가 착공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7일 영종도에서 송도 방향으로 약 6km 떨어진 해상에서 교량 상판 상량식을 거행했다. 이 대교 상량식은 무게 1400톤, 길이 50m 상판을 3000톤 크레인으로 들어 교각에 올리는 것으로 치러졌다. 개통은 2009년 10월 예정. 인천대교는 지난해 12월 영국 언론계가 뽑은 ‘세계 10대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인천대교 사장교 주탑 상판 상량식 보도 기사들이다. 인천대교니 황해대교니 작명 때문에 말이 많았고, 주탑과 주탑 사이 폭 때문에도 설왕설래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상판 상량식을 한다는 것이다. 현대 교량 기술의 전신실로 불릴 만큼 최첨단 공법을 적용하고 장비도 국내 최대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장비들을 과감히 투입했기 때문에 벌써 전체 공정의 60%를 달성한 것이라고, 김 사장은 말한다.



총 1조 27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여하여 2009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인 인천대교는 총 연장 12.3Km로서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교량 길이만도 11.7Km에 이른다. 교각 사이의 최대 간격이 800m로 이 부문 세계 5번 째, 그리고 주탑의 높이가 230.5m로 서울의 63빌딩과 비슷하다.

“인천대교 건설은 몇 년 후의 이익만을 좇는 사업이 아닙니다. 차세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에게는 꿈을 주는, 목표를 주는 정신적 사업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대교는 단순히 차량만 오가는 통행 수단이 아니라 인천과 한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김 사장과 새해 인사를 나눈다. 이런 인천인, 이런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한국인이 많다’는 그의 따끔한 일침이 이 아침 귓가에 남는다. 🍃

꽃을 피운 약속

겨울이 이렇듯 따스한 온기로 가득할 줄이야. 칠십 평생을 농사에 전념 해 오신 친정 부모님과 한 울타리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십년 전, 무남독녀 외동딸인 나는 칠남매의 셋째아들인 남편을 만나 인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듬직해 보이는 외모에 무엇보다 형제가 많은 장점이 있던 남편은 결혼하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노라고 굳게 약속을 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칠년이란 시간은 금세 흘러갔다. 두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가을걷이를 돕던 남편은 친정아버님께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님, 인천에 오셔서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라고. 까마득하게 잊은 줄 알았던 결혼 전 약속을 남편은 그렇게 꼭 피웠다. 여섯 식구가 된 우리가정에 행복을 안겨준 약속! 흔쾌히 승낙해 주신 시어머님, 어렵게 결정내고 올라와주신 친정 부모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준 남편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남편과 나는 이제 새로운 약속의 씨앗을 뿌렸다. 시어머님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가족 여행! 참처럼 쉽지 않은 현실 앞에 지금은 어렵지만, 머지않아 꽃피울 그날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 하고 있다.

정 민_계양구 병방동

금연~ 난 나의 자존심이야

일터에 갔다 집에 돌아와서도 당당하게 거실 한쪽에서 희뿌연 담배 연기를 내뿜고 가족끼리 잠깐 어디를 다녀오더라도 여지없이 내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평소 나의 성질을 아는지라 어쩔 수 없다는 듯 가끔씩 손으로 코를 막거나 창문을 내리는 등 체념한 표정으로 냉채를 받아들이며 나와 동행에 응해주었다. 신문,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경고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허탈하거나 불안해질 때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담배를 찾는 내 자신에 슬슬 부담감이 느껴졌다. 몇 해 전 고생만 하는 아내의 생일 선물로 '금연'이라는 쪽지를 써서 가족들 앞에서 깜짝쇼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토록 가족들이 원하는 일, 하나라도 실천해 보기 위해 아니 어쩔 그 순간 내 자신이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펼쳐 보이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부끄럽게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치다보니 누가 시켜서도 아닌 바로 내 자신 스스로가 했던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다. 어느 날 문득 딸 아이가 "아빠! 담배값도 많이 올랐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맛있는 거나 싹 먹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에 남 아일런 중천금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아! 이놈의 담배 못 끊으란 법도 없지만 이번에는 말로 아빠의 굳은 의지를 보



여 주리라며 저번 아내의 생일에 두번째의 금연 쪽지를 내걸며 힘차게 금연 6개월 째에 도전하고 있다. 담배를 못 피우니 후유증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에 한번씩 세상 밖으로 배출해야 할 물질을 자주 못 하고 있으니 그게 좀 불편할 따름이다. 다소 힘들지만 잘 참고 견뎌내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과의 약속을 꼭 지키리라 다짐해본다.

고승범_서구 마전동

돌아가신 형님과 약속

올해는 김장을 예년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배추 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다. 우리 집 김장에다 큰덕 김치까지 조금 더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님, 동서 사이는 가깝고도 어려운 사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형님이 살아계실 때 형님을 가끔 '언니'라고 부를 만큼 각별하고도 특별하게 의지하며 서로 아끼며 사는 사이였다. 형님이 돌아가신지 불과 2달. 유방암으로 1년 넘게 투병하다 서서히 마지막이라는 걸 아셨는지 병실에서 내 손을 붙잡고 말을 잊지 못하시던 얼마 전 일이 떠오른다.

"동서, 우리 집 세 남자들을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맘 아프지 않을 텐데. 동서, 부탁해. 가끔, 정말 어쩌다 가끔 세 남자들 어떻게 사나 한 번씩만 들여다 봐줘. 부탁이야."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들여다볼게요." 나는 형님과 이런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눈물로 저 세상으로 보내드려야 했다.

그 후 아주버님과 두 아들이 사는 형님 댁에 우리가족은 가족 나들이라 생각하고 주말마다 들러 밀반찬이나 국물을 잔뜩 끓여 술단지 짤 들고 가서 같이 어울려서 함께 지내다 오곤 한다. 형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주방을 둘러보고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곤 한다. 내가 이럴뎌데 형님은 어떻게 그런 곳으로 가셨을까?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모르겠다.

"형님,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세요. 형님과 약속대로 자주 들여다볼게요. 하늘에서 세 부자의 아픈 마음 잘 어루만져 주실거죠?"

선미자_부평구 삼산동

특별한 생일선물

결혼한 지 꼭 4년이 다 되어간다. 결혼 후 첫 번째 생일이었던 것 같다. 이른 아침 커다란 덩치의 신랑은 주방 이곳저곳을 뒤지며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신랑은 더 자고 있으라고 저를 떠밀고는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한참이 지났을까. 조그만 식탁 가득 한상 차려 놓고는 정채불명의 국그릇을 건네며 먹어보라고 했다. 건더기는 미역인데 국물은 먹물을 뿌려 놓은 듯 까맣게 동동 떠 있었다. 신랑의 깜짝 생일상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역국을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왔다.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한수저 뿔는데 세상에서 단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미역국이 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다른 물질적인 선물은 못해줘도 미역국만은 자기가 꼭 끓여서 생일상을 차려 주겠노라고 약속해서 시작된 생일상은 아직까지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물론 음식 솜씨도 많이 일취월장했고 미역국도 많이 업그레이드 돼 생일상에서 메인 요리가 되었다.

이제 생일이 다가오면 무척 궁금해진다. 올해는 어떤 미역국이 차려질까하고, 술을 너무 좋아하는 신랑은 진간장 미역국 대신 해장용 미역국을 끓인다. 미역국 재료는 전복, 굴, 미나리, 부추, 황태 등 그때 그때 달라진다.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속 풀기 좋은 해장용 미역국을 끓인다. 값비싼 선물도 아니고 예쁜 한 아들의 꽃도 아니고 사랑과 정성으로 맛나게 지은 밥과 해장용 미역국은 그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다.

신랑은 말한다. 그 약속은 늙어도 할아버지가 되어도 꼭 계속 될거라고. "여보, 고맙고 오늘은 생일도 아닌데 당신 미역국이 먹고 싶어진다. 굴 잔뜩 넣고 향기 가득한 미나리 넣고,,, 꿀~쩍"

우진영_서구 불로동

자원봉사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일이 보이지 않는 나 자신과의 다짐,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무언의 약속이라 생각한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급식봉사 모집공고를 보고 팀을 이룬지 8년여. 각자 사는 곳이 틀리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건만 매주 목요일 10시면 어김없이 "안녕하세요"하며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미진언니, 희준, 한수, 영선씨, 왕언니인 한례 아주머니, 그리고 나. 이들이 있어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행복하다. 그들은 그 하루를 위해 목요일은 약속을 2시 이후로 미루고 아파도 늦게라도 나와 설거지나 뒷정리를 도우려고 애쓰고 회로애락을 같이 공유하며 지내고 있다. 배식이 끝나고 점심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이구동성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요일 10시부터 2시까지의 급한 일이나 피치 못할 일이 아니면 약속을 잡지 말자고 한다. 나하나 쉬면 다른 누군가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려고 애쓴다는 얘기다. 그런 착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같이 긴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다.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마음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과의 만남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유기연_연수구 옥련동



가족사진

글을 쓰는 지금도 가슴이 아려오며 자꾸만 원하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모든 기억들이 그대로인걸 보니 마음속에선 아직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했나보다. 결혼하고 이제 6년! 인자하신 어머니와 무뚝뚝하시고 무서운 것 같지만 항상 내편이 되어서 큰 표현은 아니지만, 항상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던 아버님의 머느리로 나는 한 가족이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생활에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으면 아버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안주를 만들어 놓고선 조용히 날 불러 앉혀 막걸리를 따라주시며 위로해 주시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버님께 "아버님! 가족사진에 저만 없어요!

우리 애들도 없고요. 가족 사진 좀 다시 찍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래! 우리 손주들도 크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찍자"고 대답해 주셨다. 그런데 지난 7월말 모두가 휴가다 뒹다해서 들뜬 기분으

로 보내던 때였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친정에 가기로 하고 아버님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지갑에 있던 돈을 한 푼도 안남기고 꺼내 "나중에 주고 싶어도 못줘!" 라고 하시면서 한사코 쥐어 주셨다, 그러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갑작스레 쓰러지시고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떠나셨다. 가족사진을 찍자고 약속하셨던 내년이 며칠남지 않았다. 이젠 제가 약속드립니다. 내년에 가족사진 "꼭! 찍을게요" 그때 아버님도 끼워드릴게요! 하늘나라에 계시더라도 우리가족의 영원한 울타리 되어 주세요! 저 어머니께 잘하고 아버님의 자랑스런 머느리로 살아가도록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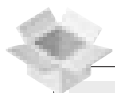
전병미_부평구 산곡2동

다음달 테마는 '습관'입니다.

'습관'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info box

희망2008나눔캠페인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2008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모금기간 : 2007년 12월 1일~2008년 1월 31일(2개월간)
- 모금창구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812-6571~4), 각 시중은행 지점 및 농협, 수협, 우체국
- 후원 :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 희망 2008이웃사랑캠페인 참여방법
 - 사랑의 전화 060-700-1210(1통화 2,000원)
 - 사랑나눔캠페인(월 3,000원 이상 일정액 기부하기 운동)
 - 각 시중은행 '사랑의 계좌'를 통한 성금접수
 - 사랑의 계좌 현황(예금주 : 인천광역시공동모금회)
 - 씨티은행 301-52838-257 / 농협 147-01-182301
 - 신한은행 502-01-100066 / 국민은행 208-01-0505-298
- ※ 타은행의 계좌번호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성금을 보내주신 후 본 모금회 (032-812-6573)로 연락주시면 영수증을 보내드리며, 『소득세법』 제34조 2항 7호에 의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9호에 의해 손금산입이 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 812-6571~4

서울역사박물관 · 경희궁 참가자 모집



- 방학을 맞아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옛 수도인 조선의 역사와 유물,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광해군의 애뜻한 정이 서려있는 경희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 대상 : 초등 1학년~4학년 20명(선착순)
 - 일시 : 2008년 1월 26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 활동내용 :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견학
 - 활동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 참가비 : 8,000원(간단한 점심 및 간식, 교통비 포함)
 - 준비물 : 필기도구, 운동화 착용
 - 접수방법 : 1월 12일까지 선착순 방문접수
 - 문의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담당 이보은 ☎ 762-7942

전문적인 대학생 자원봉사단 - 서포터즈 모집

동구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2008년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 내용 : 청소년프로그램 보조기획, 진행, 평가 등
- 일시 : 2008년 1월~12월
- 대상 : 청소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할 20세 이상 성인(학점인정)
- 신청방법 : 전화, 직접방문신청 또는 학교단위로 단체신청 가능
- 문의 : 문화사업팀 이영근 ☎ 76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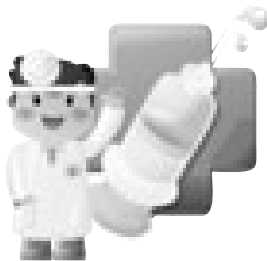
이름	6기 청소년운영위원회 "boy"모집	3기 파티기획단모집	자원봉사자 동아리 회원모집	클럽매니아(동아리)회원모집
활동내용	청소년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수련관 모니터링, 지역사회 변화활동 등	청소년파티 기획 및 파티플래너 실습	인천지역 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참가	동아리 활동 지원 수련관 내 행사 축하공연, 클럽매니아 축제, 자원봉사 활동 등
활동특전	임명장 수여, 봉사활동 60시간 인정, 새로운 친구와의 우정, 리더십 등	봉사활동 30시간 인정, 기획력 향상, 자신감 향상, 친구와의 우정 등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미술, 연극, 댄스, 스포츠(포켓볼, 탁구) 등 (※ 본인이 하고 싶은 동아리 신설가능)
활동기간	2008년 2월~2009년 2월 (2007년 12월~2008년 2월 수습기간)		2008년 4월~12월까지 (매월 약 1~2회 활동)	2008년 1월~ (동아리 활동은 수시로 이루어짐)
모집대상	초6~고3 청소년이면 누구나 (20명 모집예정)		인천지역 내 중학생	인천지역 내 중·고등학생
신청방법	전화, 직접방문신청 또는 교사의 추천을 통한 신청 가능		2008년 1월 31일까지	2007년 11월~12월 15일까지
문의	문화사업팀 강지미 761-1318		문화사업팀 김규례 761-1318	문화사업팀 오영애 761-1318

2008년 1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 및 장소 : 1월 21일(월)~1월 25일(금) 5일간,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내과 3)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고지혈증 검사
- 검진인원 : 100명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 580~6652

※ 신분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변액보험에서는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가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된다.(X)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일부 금액(납입보험료의 85~95%)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됨
- 변액보험 펀드의 과거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한다.(X)
 - 변액보험 광고 또는 안내자료 등에서 예시하는 변액보험 펀드(특별계정)의 과거 수익률은 펀드선택의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X)
 - 납입중지된 상태에서는 기존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인출되기 때문에 납입중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적립금이 부족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변액보험은 단기(1~3년) 투자상품이다.(X)
 - 중도(통상 7년이내)에 해지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어 단기투자 성격의 간접투자상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은 보장된다.(X)
 - 연금개시시점에서 최소한의 연금 지급재원(납입보험료의

70~130%)을 보증하고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개시이후에 지급될 모든 연금액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

- 변액보험에 가입만 하면 보험회사나 설계사가 알아서 펀드 관리를 해준다.(X)
 - 변액보험의 투자리스크 방지옵션(펀드변경, 분산투자 등)은 계약자의 권리로서 계약자는 자신의 판단하에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공보실 홍보팀 ☎ 02-3771-5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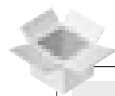
2008년도 국비무료 직업훈련 교육 안내

- 교육일정
 - 실업자훈련, 고용촉진훈련 2008년 1월, 2월중순 개강
 - 재직자는 매월 초, 중순 개강
- 교육대상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실직자 또는 주부,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야간대학생, 방통대학학종인 분들
 - 재직자(현재 고용보험 적용회사에 재직 중인 분 또는 일반인)
- 시간 : 오전 9시 50분~오후 4시 20분, 재직자는 오후 7시 20분~오후 10시 10분
- 지참서류 : 구직등록필증(각 구청, 고용안정센터발급), 우체국 통장, 신분증, 사진3매(재직자인 경우는 신분증,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
- 특전 : 교육비, 교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 재직자(교육비 환급)
- 위치 : 제물포 남부역 1번 출구 인천 웨딩 문화원 옆
- ※ 선착순 마감이므로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 교육문의 : 명진디지털직업전문학교 ☎ 882-3907~8 fax 882-4216, www.mjschool.com

원산지 제도관련 표시의무자 대폭 확대시행

인천시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7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식육원산지 표시 대상음식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쌀 원산지 표시대상 메뉴와 표시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해 올해 6월부터 대상품목별로 시행합니다.

변경내용은 식육원산지 표시 적용대상 영업소는 연면적 300㎡ 이상인 덩어리고기 취급점(구이용, 불고기, 스테이크)에서 연면적 100㎡이상 중·소형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현재 쇠고기 구이류, 쌀에서 돼지고기,



info box

닭고기, 김치류(배추김치)까지 확대 지정됩니다.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김치류(배추김치),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쌀, 쇠고기의 대 상품목의 시행일은 올해 6월(2008년 6월) 부터 시행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올해 말(2008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 음식점 영업자가 구비해 두어야 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

- 식육판매업자(정육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원산지와 종류가 기재된)를 1년 이상 보관 해야 함

■ 위반 시 행정처분

- 하위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미표시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시 위생정책과 ☎ 440-2774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희망교육원에서는 매년 1, 2월에 전문상담원 자격을 취득하는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권위와 전문성을 성실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08년 1월 11일(금)~2월 23일(월)(매주 금, 토)
- 시간 : 금요일 - 오후 2시~오후 9시(간식 제공)
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9시(점심 및 간식 제공)
- 장소 : (사)인천내일을여는집 희망교육원(인천시 계양구 계산 2동 902-1)

■ 교육내용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한국사회와 여성, 가정폭력과 여성주의 상담,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사회복지적대응, 가정폭력특별법, 법적절차및 대응, 법률구조실무, 가정폭력과 아내학대, 아동학대, MBTI성장위크샵, 외도상담, 이혼상담과 법률, 인지행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현실요법, 가정폭력피해자 및 행위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사회학과 가족치료, 부부폭력의 이해 및 부부상담의 실제, 알코올 상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담사례연구, 상담워크샵 등

- 교육비 : 27만원(농협 176-01-078112 <사>내일을여는집)
- 특전 : 교육 수료 후 본 상담소 자원상담원 활동, 본 상담소 심화교육시 할인혜택 등



■ 모집내용

- 모집인원 : 50명
- 모집대상 : 응시자격(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에 적합한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당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접수 및 문의 : 가정폭력상담소 ☎ 543-7179

Fax 544-1363, 홈페이지(메일) www.homelessshot.or.kr naeil1366@hanmail.net

■ 제출서류 : 가정폭력관련 종사자양성교육 신청서(내일을여는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기), 반명함판사진 2매, 신분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사본(해당자) 각1부

■ 문의 : 사단법인 인천내일을여는집 희망교육원 ☎ 543-7179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슬로건 및 마스코트 이름 공모

우리시에스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의 슬로건과 마스코트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합니다.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를 주

제로 열리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슬로건과 마스

코트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 1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슬로건을 만들어 주세요’

⇒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쉽게 설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짧고

간결한 형태의 슬로건

■ 공모 2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마스코트 이름을 지어주세요’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마스코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창의적

이고 부르기 쉬운 이름

■ 응모방법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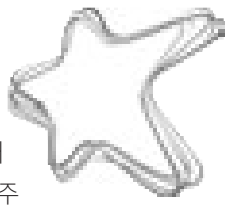
(www.incheonexpo2009.org) 이벤트 참여

- 슬로건 : 1인 3개(안) 응모가능

- 마스코트 이름 : 1인 3개(안) 응모가능 (이름 의미도 함께 제출)

■ 응모기간 : 2007년 12월 24일(월) 오전 9시~2008년 1월 20

일(일) 오후 6시



■ 당선작 발표 : 2008년 2월 4일(월)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내역

- 슬로건 분야

구 분	당선작(1명)	가 작(2명)	행운상(3명)
시상내역	3,000,000원	500,000원	200,000원

- 마스코트 이름 분야

구 분	당선작(1명)	가 작(2명)	행운상(3명)
시상내역	3,000,000원	500,000원	200,000원

■ 기타사항

- 기존 슬로건 및 마스코트 이름을 표절, 모방한 사실이 밝혀
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사후 판명 시에는 입상을 취소
합니다.

- 동일 슬로건 또는 마스코트 이름이 응모되었을 경우 접수 순
위에 따라 당선작을 선정하며, 후 순위는 당선작에서 제외되
니다.

- 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되며,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과 소유권은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에 귀속됩니다.

- 당선작은 조직위원회 심사 후 채택여부 결정시 수정 · 보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회(홍보전략본부) ☎ 440-7864,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주관대행사(홍보팀) ☎ 830-6536

중동문화원 교양강좌열립니다

아시아 최초의 중동문화원인 우리시 중동문화원에서 중동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양강좌가 열립니다.

■ 수강 시간 : 오후 2시~4시

■ 장소 : 중동문화원 강의실

■ 대상 : 중동문화에 관심있는 일반인

■ 강의 구성 : 2시간(1시간 강의, 30분 동영상 시청 또는 체험, 30분 토론)

■ 수강료 : 무료

■ 강의일정

- 1월 26일(토) - 15억 이슬
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누구인가?



강사 : 김정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 대학원 겸임교수,
이슬람 철학 박사)

• 2월 2일(토) -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강사 : 김정명(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 대학원 겸임교수,
이슬람 철학 박사)

• 2월 16일(토) - 앳 쌀람 알라이쿰, 아랍어를 배워봅시다

강사 : 최진영(한국 중동협회 사무총장 아랍 언어학 박사)

• 2월 23일(토) - 두바이와 중동 경제 따라잡기

강사 : 장건(중동문화원 비즈니스 센터장, 경제학 박사)

■ 기타 : 당일 좌석이 모자를 수도 있으니, 강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필히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약 시에는 성함, 전화번호, 인원 등의 정보를 남겨 주
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동문화원(담당자 송윤경) ☎ 432-1778

e-mail: rhea0331@nate.com

〈굿모닝인천〉에서는 효과적인 시청홍보와 〈굿모닝인천〉의 발전적
인 발행을 위해 구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구독
자 중 2천명을 대상으로 군 · 구별로 표본 추출했습니다.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 중 100분을 추천, 선정해 문화상품권(1만원권)을
택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남경민(시흥시 하중동) 오시근(동구 송현동) 장원석(남동구 구월2동) 노연숙(남구 학익1동) 원주배(연수구 청학동) 전길미(연수구 연수동)
고현옥(계양구 작전2동) 문상범(연수구 동춘동) 유광석(남동구 간석2동) 전유식(남동구 만수동)	권세원(부평구 청천동) 문은순(부평구 부평1동) 유선경(부평구 청천동) 전윤옥(강화군 화도면)
권지연(중구 전동) 문해숙(부평구 심정2동) 윤동원(서구 석남1동) 전종현(강화군 선원면)	김경화(서구 가좌2동) 민경자(남동구 논현동) 윤미선(남동구 서창동) 정재선(연수구 청학동)
김광일(중구 유동) 박건우(남동구 간석동) 윤유순(서구 신현동) 조광태(강화를 월곡리)	김기운(연수구 동춘2동) 박영식(남동구 논현동) 이경민(부평구 산곡3동) 조성범(남동구 간석2동)
김민영(서구 불로동) 박운개(중구 내동) 이근태(서구 석남3동) 조성은(남동구 만수동)	김민희(남동구 구월동) 박찬용(시흥시 하중동) 이명희(부평구 산삼동) 조은경(부평구 심정2동)
김봉순(연수구 송도동) 배성희(부평구 청천동) 이미선(부평구 산곡3동) 조재선(강화군 화도면)	김성수(남구 학익동) 백영일(연수구 동춘동) 이복실(연수구 동춘동) 지화영(연수구 옥련동)
김성진(계양구 병방동) 백정기(강화군 갑곶리) 이상일(부평구 산곡동) 진길홍(연수구 송도동)	김소라(부평구 부개동) 서갑영(남구 학익1동) 이수영(남구 도화2동) 차성수(부평구 산곡3동)
김송자(서구 가좌2동) 서부원(부평구 부평6동) 이신애(중구 을목동) 차현진(남구 학익2동)	김승용(강화군 불은면) 석규선(남동구 만수4동) 이연근(동구 송현2동) 채기수(계양구 작전2동)
김연화(남구 송의2동) 석미숙(남동구 논현동) 이영희(부평구 갈산동) 최중권(연수구 연수1동)	김영욱(남동구 만수동) 손재우(남동구 구월2동) 이완규(부평구 부평2동) 최한선(부평구 부평4동)
김명천(연수구 청학동) 손정순(강화군 불은면) 이은미(강화군 강화읍) 한동원(강화군 내가면)	김유미(중구 내동) 손희성(서구 가좌동) 이은세(시흥시 은행동) 한성민(서구 심곡동)
김정옥(연수구 동춘3동) 신명현(계양구 작전동) 이인신(서구 신현동) 한성민(중구 신흥동1가)	김종근(옹진군 덕적면) 신영철(남구 용현4동) 이하성(강화군 길상면) 한현택(남구 송의3동)
김중준(부평구 일신동) 심영신(남구 용현1동) 이현순(서구 석남3동) 허경원(연수구 연수2동)	김진애(남동구 구월2동) 양경순(연수구 동춘3동) 이현주(연수구 송도동) 한국환(남구 주인7동)
김현숙(부평구 산곡4동) 여도원(중구 신생동) 장명숙(남구 학익1동)	김홍기(남구 송의3동) 여지원(연수구 연수동) 장순남(남구 학익2동)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ncheon's Famous Underground Shopping Market



Shopkeeper : Hello young lady, how can I help you?
 Customer : Hi, can I try these boots in a larger size please?
 Shopkeeper : Sure, no problem, We also have that style in other colours. Would you like to see them?
 Customer : Please.
 Shopkeeper : Here you are. Are they the right size?
 Customer : Yes, they are. Would you happen to have this style and size in brown?
 Shopkeeper : Yes, I will get them for you.
 Customer : Great, I will take them, Thank you for your service.
 Shopkeeper : It was my pleasure, Have a nice day.
 Customer : Goodbye!

가게 점원 :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 님 : 안녕하세요, 이 부츠 큰 사이즈로 신어볼 수 있을까요?
 가게점원 : 물론이죠. 같은 스타일의 다른 색깔 부츠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손 님 : 네, 보여주세요.
 가게점원 : 여기 있습니다. 사이즈가 맞나요?
 손 님 : 네, 맞아요. 이 스타일의 같은 사이즈로 갈 색도 있나요?
 가게점원 : 네, 가져다 드릴게요.
 손 님 : 좋아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가게점원 : 천만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손 님 : 안녕히 계세요!



글 · Tania Vesia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 강사

The Bupyeong underground shopping market is located in the Bupyeong subway station. Bupyeong station operates as a transfer station for the Seoul subway line, which makes traveling to the market by subway a convenience to residents living in Incheon and the Seoul areas. The diversity of products that can be found at the market, such as clothes, shoes, jewelry and electronics, and the low cost of these latest fashions, make the market an ideal shopping place for both foreign and local shoppers seeking to purchase the latest trends at an affordable price.

부평 지하상가는 부평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평 역은 서울 지하철로 환승하는 역으로, 인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상가를 가기에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부평 지하상가에서는 의류, 신발, 장신구, 그리고 전자제품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의 최신 유행 상품들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에 최신 트렌드의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쇼핑객들에게 이 상적인 쇼핑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
동
에
서
만
들
어
진

근
대
화
폐



주조식으로 만든 옛날 돈을 엽전(葉錢)이라 한다. 주전 틀에 쇳물이 흘러간 자리는 나뭇가지처럼, 만들어진 돈은 나뭇잎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소전이라는 원판을 기계 사이에 넣어 눌러서 만드는 압인식 화폐다.
 압인식으로 유통화폐를 처음 만들어낸 곳이 인천이다. 옛 인천여자고등학교 부근을 전동(錢洞)이라 부르는데, 이 곳에 근대화폐를 만드는 인천전환국(仁川典圀局)이 있었다.
 1892년에 주조된 화폐에는 당시 조선의 나약했던 국제적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 1892년은 조선이 개국한 지 501년째 되던 해로, 이 해에 만들어진 화폐에는 '대조선개국오백일년(大朝鮮五百一年)'이라는 국호와 연도가 새겨져 있다. 그러자 청나라의 위안스카이(遠世凱)가 '대국은 청나라요 조선은 소국이니, 대조선이라 하는 것은 국격상 체모에 불합하다'고 간섭하며 '대(大)'자의 제거를 요청, 그 후에 제조된 폐에는 '대조선'이 아닌 '조선'으로 바꾸어 발행됐다. 그 후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한 후에는 잠시 '대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에도 민족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인천전환국에서 발행한 '대조선개국오백일년' 명 닳냥은화가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유일하다. ㄹ

글 · 사진제공 · 인천광역시립박물관